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총재 이재갑 목사 취임

새 시대의 새 희망과 새로운 주역으로서의 역점을 두고 우리 민족과 세계구원역사를 위하여 헌신을 다짐



▲총재 이재갑 목사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는 이재갑 목사를 총재로 추대하고 1월 17일(목)오전 11시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빛과소금교회 본당에서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사무총장 박영민 목사 사회로 1부예배가 진행되어 상임회장 데이비드 김 목사가 기도를, 실무회장 전진성 목사가 성경 왕하2:12~25절을 봉독하고 대표회장 이재원 목사는 “엘리사 신앙을 본 받자”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본지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 자문 전성민 목사, 부총재 박길찬 목사가 축사를, 총재 이재갑 목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고,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가 세계복음화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섬기겠다고 했다. 또한 이 총재는 새 시대의 새 희망과 새로운 주역으로서의 주 안에

서 새로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지시길 소망하며, 그 일에 미력이나마 통로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하고, 부흥사역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민족과 세계의 구원역사를 위하여, 저와 함께 헌신하기로 다짐한 뜻 있는 소수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를 결성하게 되었다면서 분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사랑과 격려로서 뜨겁게 기도를 부탁했다”

이어 대표회장 이재원 목사는 총재 이재갑 목사에게 총재 추대패를 전달했으며, 지요한 목사 외 회원들과 복음가수 강수정 집사가 축하를 했으며, 나라와 민족, 대통령, 위정자를 위하여, 한국교회 영적 성장을 위하여, 세계선교와 선교사역을 위하여, 본 부흥사협의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특별기도를 드렸다.

이어서 사무총장 박영민 목사의 광고가 있었으며, 총재 이재갑 목사 축도로 취임식을 마쳤다.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이하-세주부흥)는 초교과 부흥사 단체로서 ‘오직



▲총재 이재갑 목사에게 추대패를 전달하는 대표회장 이재원 목사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자제로 2005년에 발족하여 ‘성령의 불길은 온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3대 총재 이재갑 목사는 국내외 교회와 기도원을 살리는데 왕성한 활동으로 일조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키겠다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나라 세우는데 열정을 불사를 것이라고 했다.

세주부흥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는 말씀아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흥사가 되기 위하여 발족되었다.

영화배우 유선, 밀알복지재단 홍보대사로 위촉

밀알복지재단, 유선씨 홍보대사 위촉 임명

국내외 소외된 장애아동들의 희망으로 적극 활동다짐



▲밀알복지재단, 유선씨 홍보대사 위촉 임명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며 말했다. 내외 장애아동들의 희망으로 적극 활동 유선은 향후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국

영화배우 유선 씨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받았다.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은 지난 10일(목)오전 11시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인 밀알학교 1층 로비에서 유선 씨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밀알복지재단은 1979년부터 30년간 국내외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국내 최대의 특수학교인 밀알학교와 직업재활, 그 룹홈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아동들을 위한 사회복지도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약 553,541명 중 3.9%인 21,588명은 중증장애아동인데 이들 대부분은 몸을 움직이지 못해 근육이 경직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물리

치료를 할 경우 경직약화와 몸의 활동을 도울 수 있다.

밀알복지재단은 이러한 중증장애아동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방문물리치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유선 씨는 가까이 홍보대사를 하게 되었고 방문물리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아동들을 위해 활동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며 ‘기적을 품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할 의욕을 보였다.

영화 글러브에서 수화를 하며 장애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느꼈다는 유선씨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과 장애인들을 도울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소진우 목사 2010년, 2011년 성회일정

한 해 동안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사 소진우 목사

H·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 로고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 라이즈월드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극동방송컬럼리스트
- 백성TV컬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예복교회 담임

2010년 1월	
4~7	도곡산기도원(임재제) 원장
10	대광교회(오봉수 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1~13	마가약(박기범) (보성영 원장)
17	경향교회(한현희 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6~20	신광교회(조호원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5~27	신일교회(최세걸 목사)
28	갈렐산기도원(임재제 원장)

2010년 2월	
1~3	한별교회(전복수 목사)
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9~10	독산교회(김의대 목사)
10	삼마울교회(김동호 목사)
15~19	선교지침문
21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2~24	평택중앙교회(김옥복 목사)

2010년 3월	
봄철축복대심방	
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1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0	희광교회(윤호근 목사)
20	동서울성회교회(라미동 목사)
20~1	갈렐산기도원(임재제 원장)

2010년 4월	
5~7	도원교회(유순기 목사)
12~13	장기노회
13~15	효진교회(이영주 목사)
18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9~21	이레교회(황송주 목사)
21	통영기독교연합회(미수교회)
26~30	선교지침문

2010년 5월	
3	원당스망교회(김정호 목사)
6~10	성문교회(이종학 목사)
9	세암교회(김병식 목사)
10~12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6	광은기도원(김환배 원장)
17~20	갈렐산기도원(임재제 원장)
20	미쁜교회(이봉현 목사)
23~26	

2010년 6월	
31~3	진주기도원(김진홍 원장)
6~10	삼평부흥성회(예복교회)
8	성소기도원(박정원 원장)
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4~16	열방교회(신보현 목사)
18	일신군교회(주성민 목사)
21~24	갈렐산기도원(이우관 원장)
25	한말산기도원(이영규 원장)
28~30	풍성한말교회(이수관 목사)

2010년 7월	
5~7	성신교회(이명배 목사)
11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2~16	신학생영양특례세미나
19~22	애반디동담기도원(최원인 원장)
23	21세기성회(충주분부연합회)
	(노배도로 목사)
26~29	임마누엘기도원(김순숙 원장)

2010년 8월	
2~5	에 수도산기도원(이영이 원장)
8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9~12	성산수영관(윤준규 원장)
16~18	경성교회(이정근 목사)
23~25	천진오지여 연합성회(이경희 회장)
26	양평군속기도원(김기호 원장)
26~27	갈렐산기도원(임재제 원장)
30~9.1	무문초교회(김종철 목사)

2010년 9월	
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6~8	퇴계원교회(김종현 목사)
13~16	교단총회
15	정동교회(백현기 목사)
20~24	인산선교회(행길로)
26~28	성산성교회(한성기 목사)

2010년 10월	
3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4~6	서북교회(배영락 목사)
8일	한말산기도원(이영규 원장)
11~12	장기노회
12~14	주영광교회(김상국 목사)
16	갈렐산기도원(임재제 원장)
17~20	동서울성회교회(라미동 목사)
22	소망기도원(연인애 원장)
24	주님의교회(양원기 목사)
2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6~27	초대교회(이종학 목사)
28일	천안이섬지는 교회(김광주 목사님)

2010년 11월	
1~3	신원장로교회(김영구 목사)
8~10	경원교회(이원경 목사)
15~17	수원평안교회(김원구 목사)
22~24	평강교회(한기정 목사)
26	소망기도원(연인애 원장)
28	임마누엘수영관(이수영 원장)
29~2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00선교지침문

2010년 12월	
3	갈렐산기도원(임재제 원장)
6~8	매수비전교회(김승업 목사)
13~15	천안교회(조성민 목사)
20~24	00선교지침문
26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7~29	논제말교회(소도원 목사)

2011년 1월	
1/1	갈렐산기도원(임재제 원장)
3~5	동탄시원의교회(이주홍 목사)
7	한말산기도원(이영규 원장)
9~15	산남특별성회(예복교회)
13	간디교단제세미나
16~19	삼마울교회(정영호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4~7	갈렐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011년 2월	
31~4	칼빈디아 선교대성회
6	효창중앙교회(최복대 목사)
7~9	출산선교회(김현진 목사)
14~17	성산수영관(윤준규 원장)
2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1~23	미수교회(전동수 목사)
27~32	원당스망교회(김정호 목사)

2011년 3월	
봄철축복대심방	
7~10	성서교회(관제영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011년 4월	
4~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0~12	장기노회
12~14	장성교회(이광구 목사)
1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8~20	내곡교회(함영진 목사)
25~27	신원장로교회(이광수 목사)

2011년 5월	
2~4	서울사범여전도연합성회
9~12	갈렐산기도원(임재제 원장)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6~18	동대천교회(홍우일 목사)
23~25	갈렐교회(정영호 목사)
29~9.4	삼마울교회(정영호 목사)

2011년 6월	
6~8	주우리교회(이광구 목사)
12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3~17	선교지침문(노회 선교위원)
20~22	원도순복음중앙교회(정영호 목사)
27~29	신한이웃교회(김순복 목사)

2011년 7월	
4~6	새원교회(이영근 목사)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1~15	신학생영양특례세미나
18~21	소망기도원(연인애 원장)

2011년 8월	
1~4	금산암바는 열수영관(이수영 원장)
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8~11	광은기도원(김환배 원장)
15~18	갈렐산기도원(이우관 원장)
22~25	천진오지여 연합성회
29~9.1	독곡산기도원(임재제 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금권선거, 재정횡령, 폭력 등 추락한 대형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대형교회와 한기총」

네띠즌에 다시 못매를 맞는 소망교회 “부목사 사기사건 혐의 또 불거졌는가 하면 한국대형교회의 돈, 섹스 추문들, 한기총의 불법금권선거와 양심선언 등” 한국교회 위상이 여지없이 추락하고 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분명코 교회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잡아야 한다. 예수님은 누가 네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쪽도 돌려 대어라.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마5:39,44)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빛과 소금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교회가 국민들로부터 네띠즌들로부터 부끄러운 모습에 인성만 더 찌푸리게 만들고 있으니... 지난해 말부터 일반 언론에 잇따라 터진 대형교회들, 최근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대표회장 선출에 있어서 금권선거 타락으로 인해 이광선 목사(직전 대표회장)측과 길자연 목사(대표회장)측이 법적 싸움으로 대표회장 가져분신청을 했고, 15일 김화경 목사는 대표회장 선거 당일에 길 목사 측으로부터 5만원 권 10장을 받았으며 양심고백을 했는데...길자연 목사와 홍제철 목사는 그런 사실도 없고, 김화경 목사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는 한국교회사에 부끄러운 추태가 아닐 수 없다.

지난번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일어난 담임목사 비방사건,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의 재정 횡령사건, 분당중앙교회 최종현 목사, 삼일교회 전병목 목사의 여성도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이 시

사재널,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교계신문 방송에 다루어졌다. 한국경제 신문에 의하면 분당중앙교회 최종현 목사는 연봉 6억 받는 목사, 자녀교육비로 2억원 유부녀 영당이까지 탐해 “충격”,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긴 목사는 하나님도 너그럽게 용서해 줄 것 같은데,라고 했다. 정말 부끄럽다. 한완상 전 부총리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형 교회에서 권력 다툼과 파벌 싸움, 폭행, 성추행 등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교회의) 예수 없는 거대화”로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큰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받기 쉽다”고 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질적 힘과 권세, 종교적 카리스마를 주겠다고 한 유혹을 모두 이겨 냈다. 예수가 거부한 것을 오늘의 대형 교회 일부 지도자들이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담임목사와 부목사간의 폭력사건으로 2011년을 어둡게 시작했던 소망교회가 아닌가 한데 지난 1월 말부터 김지철 목사가 다시 강단에 서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였다. 또한 모 일간지를 통해 지난해 6월 성도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사직한 부 목사의 사기혐의가 뒤늦게 불거지면서 또 다시 네띠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모 일간지는 “이 전 부목사는 평소 ‘정와대 기독교 신우회 지도목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자신의 지위를 과시했다”며 “소망교회 권사 이 아무개 씨의 집을 담보로 9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이러한 혐의 뿐 아니라 공문서를 위조하고



하위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진술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에 지난해 6월 소망교회 부목사직을 내려놨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목사는 이미 피해자 이씨로부터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운영하고 있던 카센터의 임차보증금조차 갚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을 했다. 한편,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는 소망교회에서 다시 불거진 사건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에 들끓고 있는 분위기다. 교회를 다닌다는 어떤 이는 소망교회와 대형교회를 볼 때 한심스럽고 실망감이 든다고 했다. 한 포털사이트의 블로거는 “대통령이 다니는 소망교회가 대통령 뺨을 믿고 교회에서도 권력싸움이 한창이잖나... 이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은.. 바람 잘 날 없어 보이네요.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교회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교회가 국민들의 인성만 더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는 꼬리를 물고 있다. 최근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는 설교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이라고 밝히며 “그러나 믿음은 가졌지만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마음 안에 불인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신약을 보면 말씀으로 세상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질병 앞에 선 자, 죽음 앞에 선 자, 간음한 자를 두려움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끔히 씻어 주셨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를 회상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려 할 때마다 의심이 생겼다. 너무나 많은 의심과 질문들이 머리를 끊임없이 휩쓸었다”며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손을 확인시켜주신 말씀을 보고 의심이 많았지만 믿음으로 한결음씩 나아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전도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지철 목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지철 목사는 퇴임 후 설교를 통해 교회의 회복과 또 성도들이 말씀 앞에 깨어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독려하기 바랐다. 그런데 복귀한 지 2주밖에 안 된 시점에서 전 부목사 사기 사건이 또 불거지면서 그러한 김 목사의 메시지는 의미가 퇴색되고 마는 분위기다. 소망교회가 다시 도덕성에 심판을 받게 됐으니... 김지철 목사와 소망교회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의 2010년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인행일치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15.6%) △교인들의 비윤리적 행동 때문에(14.9%) △타 종교에 대해 편파적이어서(7.7%) △교회의 전도 유치 활동이 심해서(6.6%) △목회자와 교인이 믿음과 신뢰를 못 취해서(6.3%) △돈에 집착해 이익만 챙기기 때문(5.5%) 외에 불투명한 재정 사용, 교회의 대형화를 지적했다. 응답자들의 지적은 최근 대형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고스란히 연결되어 있다.

게다가 남오성 사무국장은 “교회의 자정 능력이 사라져 일반 언론의 비판 대상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 교회 외부의 질책이 교회 개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교회를 혐오하게 될 것 같아 우려된다”고 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대형 교회 말고 건강한 목회를 하는 작은 교회들도 많다. 건강한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CJTN 편집부

교회와 경찰 중앙협의회 제38대 대표회장 김재송 목사

교회와 경찰 중앙협의회는 2011년 나라의 안정과 민생치안을 위한 오찬기도회를 가진 뒤 제38차 정기총회를 열어 김재송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2011년 1월 27일(목) 오전11시 구 하립각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오찬기도회에 박노아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 내빈소개와 경찰악대의 광파대에 이어 이상운 목사(직전회장)가 ①대통령과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양재철 목사(경목실장)가 ②경찰청장과 민생치안을 위하여, 양정섭 목사(공동회장)가 ③경찰선교와 교경발전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어 황원택 목사(신창교회)는 사도행전 13장 16~23절을 봉독하고 경찰악대와 영동포지역 목회자 사모 함창단, 최경열 교수(백석대학교)등이 특별

연주와 찬양에 이어 황원택 목사는 ‘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안이영 직전대표회장은 인사말씀을 전하고 조현오 경찰총장(치안총감)이 교경협에 선교헌금을 전달했

나라의 안정과 민생치안을 위한 오찬 기도회 및 제38차 정기총회



고, 교경협은 감사장을 조 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조현오 청장은 “최근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지만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려는 자정의지만 꺾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인사정책과 국회 비리 척결, 인권문제에 힘써 국민중심 경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는 기도해주시는 여러분 없이는 할 수 없으니 지속적인 신뢰와 기도로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남상곤 목사(해양경 경목실장)가 2부 오찬기도를 했다. 교경협은 제38차 정기총회에서 김재송 목사가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고문 최병두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예담교회(강석홍 목사) 입당감사예배 드려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중앙노회 예담교회 강석홍 목사는 건물을 구입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세우고 1월29일(토)정오 12시 입당감사예배로 드려졌다.

담임 강석홍 목사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어 중앙노회 부서기 최재필 목사가 기도, 회회록서기 이기수 목사가 성경 살전 1:4~10절을 봉독하고, 특별찬양에 이어 노회장 정기남 목사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노회장 정 목사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살기를 몸부림쳤던 데살로니아교회를 본받아 예담교회도 교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기를 원했다.

또한 오늘 예담교회 성도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말세에 때가 급박하다는 것을 알고 눈물로 기도하며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기도에 힘쓰는 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일, 종말신앙을 잊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주님 맞이하는 일,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고 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는 예담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했다. 이어 회계 손성규 목사가 헌금 기도를, 웨스트민스터 무용단의 특별무용이 있었으며, 부노회장 정기환 목사가 축사를, 박삼열 목사(전인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의 격려사가 있는 후 강석홍 목사의 인사 및 광고가 있었으며, 김용진 목사(증경노회장) 축도로 마쳤다.

자지스티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16개 지사 / 해외 9개국 지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40-31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70)8230-0032, 0034 ▶팩스 : 02)741-0031
▶대표 : 011)468-6574, 02)741-0031(팩스겸용)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논설위원)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교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9027-9712

표어: “좋은 땅이 되라! (마13:8)”

“좋은 교회 어디 있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따로 있나 우리 모두 좋은 성도”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목사 오종철

2010년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년 예배	주일 낮 예배-1부 주일 오전 9:00
	주일 낮 예배-2부 주일 오전 11:00
	주일 밤 예배 주일 밤 7:30
	수요 밤 예배 수요일 밤 7:30
	금요영성치유집회 금요일 밤 9:00
교회학교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어린이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모임	중, 고등부 토요일 오후 4:00
	대학부 토요일 오후 6:30
영년회	토요일 오후 6:30

문 화 교 실

순번	구 분	시 간
1	홍남사모아카데미	월요일 오전 11:00
2	배목교실	주일 오전 10:00
3	탁구교실	수요일 오전 12:00
4	재지훈련	주중 정한시간
5	웃음에 축구교실	주일 오후 3:00
6	음악교실	주일 오후 2:00
7	웃음에	주중 매일
8	재력단련	주중 매일
9	홍성아동발과후교실	주중 매일
10	홍성성경대학	오전반 [수, 목] 오후반 [토, 목]

홍성교회홍성교회

주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 번지
전화: 041- 634-0441(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운영이사)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요일 5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요일 6시
새 벽 예 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토 11시
금요일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저녁 6시

•선교사: 김경자 •강도사: 장정훈 이진영,
•전도사: 장성철, •반주자: 한진경, 한송이

(우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7층
전화: (031)424-7612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성교회

(부설 : 광성노인대학)



담임 **장창수** 목사

장 로
이유영 윤호중 조두현

안수집사
김형준 차경식 공종현
윤진명 이찬영

(우)447-140) 경기도 오산시 쿨동 661-1

☎ 031)373-1151, 377-9372 팩스 031)372-2583

웨신총회 94, 95회기 가입자 “목회자 연수교육”성황리에 마쳐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총회장 성홍경 목사)에서 2월 14일~18일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총회직영, 웨스트민스터신학교(학장 정기환 목사)에서 웨신총회 신학원 주관으로 94회기, 95회기 간 가입한(각 노회)남녀 목회자, 강도사, 전도사 등 2011년도 1차 특별연수교육을 실시 성황리에 마쳤다.



사 축도로 마쳤다. 2011 1차 목회자 연수교육은 교회음악과 찬양, 교수 장창수 목사, 현대 신학의 흐름, 교수 이원석 박사, 기독교와 이데올로기, 교수

정재규 박사, 목회자의 리더십, 교수 김용진 박사, 교단의 비전과 정체성, 교수 이동우 박사, 교단헌법, 교수 장창수 박사, 특별세미나, 교수 정인찬 박사,

웨스트민스터 신조, 교수 림택권 박사, 교회와 성례전, 정기환 박사, 목회와 정치, 교수 임철환 박사 등이 맡았다. 18일 오후 3시30분 신학위원

회 서기 장창수 목사 사회로 종강예배가 드려지고, 부총회장 이재갑 목사가 기도, 총회서기 김택배 목사가 성경봉독을, 증경총회장 장창수 목사는 “시대의 걸 맞는 목회자”란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학장 정기환 목사가 광고를, 증경총회장 이일영 목사 축도로 종강예배를 마쳤으며, 2011 제1차 웨신총회 목회자 연수교육 졸업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또한 웨신총회 연구위원회는 전북, 전남 목회자 연수교육을 24일부터 목포신학교(학장 조광표 박사)에서 가졌다.

서울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정기환 박사는 연수교육을 통해 목회현장에 더욱 값진 사역이 될 것이라며, 2차 목회자 연수교육이 이루어져 나가기에 희망하고, 또는 본신학교를 통해 우수한 목회자, 이 시대에 능력 있고 영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데 있어 교단성장에 큰 기쁨과 밑거름이 되는 기회가 되었다며 좋은 평을 내렸다.

3호 청사 기밀문서를 확보하라

질서회복과 핵 인수 못잡게 노동당과 김정일 기밀확보가 긴요



▲ 북한 김정일

지난해 12월 뮌헨에서 발생한 장기독재에 대한 민중의 항거와 붕괴가 이집트 무바라크 축출로 이어지고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인접국으로 맹렬한 기세로 번지면서 동진(東進)을 하자 56개 다민족국가인 중국이 긴장하고 63년 3대 세습 김정일 정권이 크게 동요하면서 붕괴하려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 했다.

북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무능과 연속되는 자연재해, 어쭙잡은 ‘선군정치’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면서 강력한 주민통제수단인 배급제가 파탄 나고, 북구멍에 풀칠을 하기 위한 공여지책으로 종래의 물물교환 농민시장이 전국 각지에 350여개의 화폐교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당국의 통제에 안 먹혀들었다.

이제 북에서는 1959년 1월 5일 김일성이 전국농협협동조합대회에서 예언적으로 우려했던바 “농촌에 소상품생산적 농촌경리(농촌경제)가 지배, 자연 생생적(발생적)으로 (공산주의의 敵인) 자본주의의 부르주아가 생생”하게 됨으로서 세습독재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화폐개혁’마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됨으로서 국제사회와 외국으로부터 원조와 南쪽의 파주기는 김정일 3대 세습 독재체제 강화와 핵과 미사일 개발 등 선군정치와 우상화작연, 일북특권층에 대한 사해(施惠)용 통치자금, 유사시 해외도파용 비자금으로 약용되고 당과 군 간부들이 시장으로 물품을 빼돌려 부패 만연과 치부에 악용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 초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김일성의 자연개조 5대방침의 참담한 실패와 김정일의 3혁명소조운동 부작용으로 경제구조가 왜곡되면서 자연마저 파괴되어 농업기반이 무너지면서 만성적인 식량난이 지속된 가운데,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군량마저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해 왔다.

이로 인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생계형 비리가 속출하면서 도처에서 본보기 총살형이 빈번하게 벌어지지만, 악에 바친 민심을 잠재울 수는 없게 됐다. 따라서 北 내부의 끓는 기름과 같아서 어디선가 불뚱하나만 튀게 되면, 삼시간에 폭발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집트사태의 불길에 옮겨 불을 태세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대한민국은 북의 혼란을 통제함과 동시에 민심을

평정하고, 중국의 개입과 간섭을 차단하면서 대규모로 발생할 난민에 대한 사전적 대책이 불가피한 한편, 무엇보다도 핵 및 화생무기 등 WMD 점수와 통제가 긴요한 것 이상으로 노동당 3호 청사와 김정일 집무실 기밀확보가 필수적인 것이다. 만약 北 기밀확보에 실패한다면, 60여 년 간 敵과 내부 아합해 온 북괴간첩 및 푸락치들의 친북반역의 증거와 악행의 실체가 사라짐으로서 우리 내부에 ‘적과의 동침’ 수준이 아니라 반역세력과 혼숙 동거상황이 벌어지면서 반역세력의 재결집과 반격으로 내전을 치르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초래케 될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김정일에 절대충성을 맹세하고 김정일에 무조건 복종하면서 대한민국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에 혈안이 되어 폭동반란과 살인방화, 외국공관점거와 강도인질극까지 자행한 소위 ‘민주화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김정일 체제붕괴 자체가 아니라 3호 청사 기밀과에서 반역증거가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국민적인 반대와 민심을 무릅쓰고 인도주의와 민족애로 위장해 평화와 화해 협력을 구실로 “설사 軍糧米로 전용돼도 쌀을 지원해야 한다.”는 개변적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따라서 北의 黨軍 간부 중에 핵무기와 함께 노동당 및 김정일 집무실 기밀을 온전하게 인계하는 자에게 특혜를 약속해야 한다.

이쯤에서 묻는다. 북에 무한 협력과 충성을 바쳐 온 남노당 푸락치와 그 23세들, 인혁당, 통혁당, 남민전, 중부지역당 등 북괴지하당 간첩조직 잔당 들, 한총련 범민련 6.15 실천연대 등 반국가단체 조직원들, 진보연합(진민련,전국연합), 민노총, 전교조 전 국민연노조 내 적과 내부 암약한 빨갱이들 얼마나 많고 있나?

백승목 논설위원
hugepine@hanmail.net

결빙의 계절

복지예산 확대하여 저변 층 줄이자. 노숙인에게 삶의 터전을 주자

급진 겨울은 유난히도 추위가 심하다. 또한 가축 전염병으로 농촌 도시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년 찾아오는 추위 속에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노숙인들! 그들의 배고픔과 추위를 누가 알겠는가? 인간의 본능은 먹는 것, 입는 것, 따뜻한게 잠자는 것인데 노숙인들의 고통은 참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매년 년 말이면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등장하며, 봉사 단체에서는 불우 이웃을 돕자고 거

리에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자선냄비와 모금함은 진정으로 추위에 떨며 배고파하는 노숙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전국 기차역과 버스 주차장들을 배회 하면서 구걸하는 노숙인들! 그들에게 아무런 정책 배려가 없다면 복지국가를 지향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복지는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저변 층을 보다 잘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현실 속에 노숙인 문제는 다른 어느 업무보다 선행 되어

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노숙인 중에는 병든 자, 장애 자, 공직 퇴직자 종교계 기업체 등 다양한 출신들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노숙인들도 한 때는 국가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한 자들이다. 길거리에서 배고픔과 추위로 동사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가 경쟁력이 우수하다 하여도 저변층 결인과 노숙인이 많아진다면 복지정책에 모순이 있는 것이다. 동전 몇 일으로는 그들을 도울 수 없는 것이다. 생활인정 대책을 세워 그들의 능력과 기능을 따라 일터를 조성하여 생산적인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자립대책으로 기업에서 인력을 노숙인 중에서 선정하여 고용토록 한다면 그 보다 더 좋은 복지정책을 없을 것이다. 희망과 용기를 주자.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자. 현실적으로 볼 때 저변 층 노숙인 문제는 학교 무상급식 보다 더 시급히 다루어야 할 과제라

생각 한다. 저변 층 확대를 줄이고 생산성 있는 일터를 제공하며,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준다면 이상형의 복지사회가 될 것이다.

몇 백억의 자금이 소요되는 경기장, 야구장, 골프장 건설은 오늘의 현실에서는 재고되어야 할 사항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된다는 것은 전혀 현실 사회와는 동떨어진 정책이라 생각한다. 매년 년 말이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땅을 파고 있다. 땅을 파고 관을 묻고 보도를 깔고 나무를 심는 등 인도와 도로 는 운통 공사장을 방불케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매년 거듭되고 있는 것인가? 당해 년도 예산에 남음이 있으면 마지막 주지도 있는 것이다. 경쟁 사회에서 뒤떨어진 자들에게 동료 의식을 가지고 위로와 격려로 통행 한다심을 갖게 될 것이다. 예산은 기획으로부터 책정 되는 것이다. 열거한 내용과 같이 지방 사업을 타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실질적인 예산을 책정하여 지역 발전을 이룩함과 동시에 어려운 저변 층과 노숙인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바라는 마음이다.



▲서영웅 목사
퓨리탄 장로교회
(본지 상임이사)

사람은 총생과 동시 경쟁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운동장에서 경주자들이 달리기 하는 것처럼 선두주자가 남음이 있으면 마지막 주지도 있는 것이다. 경쟁 사회에서 뒤떨어진 자들에게 동료 의식을 가지고 위로와 격려로 통행 한다심을 갖게 될 것이다. 예산은 기획으로부터 책정 되는 것이다. 열거한 내용과 같이 지방 사업을 타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실질적인 예산을 책정하여 지역 발전을 이룩함과 동시에 어려운 저변 층과 노숙인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바라는 마음이다.

피종진 목사 2월 국내·외 부흥성회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jongjin777@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총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T: (02) 3411-9191
F: (02) 401-7770
F: (02) 3411-9111

1.3(월)~3(목) 서울 강남구 역삼동 원동원 목사 ☎ (02) 2683-4202
5(목) 오전 연세총동문부흥사회의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 조 목사
5(목) 오전 안양 주안교회(강제인) 목사 ☎ 010-2425-8549
7(일)~9(일) 서울 시모성교회(임우자) 목사 ☎ (02) 843-8885

제2차 해외성회(162nd Overseas Assembly)
10(목)~13(목) 호주(Australia) 케언즈순복음교회 김국진 목사 ☎ 617-4032-5016
주최 (사)세계성회운동본부(한국총회) 오세아-미성회대회

14(월)~15(화) 호주(Australia) 시드니 순복음교회(장우성) 목사 ☎ 612-9750-5777
17(목) 오전 한영신학대학교 총장 한영훈 박사 ☎ (02) 267-4500
17(목)~19(토) 서울 성신대학교(김재민) 목사 ☎ (02) 494-3353
19(토) 오후 국제총회신학교(학교총장) 피종진 목사 ☎ (03) 988-9191
20(주) 오후 인천 순도성교회(조장원) 목사 ☎ 010-5678-3166
21(월) 오전 (대)세계복음화회의(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정기총회
21(월) 오후 전국 목회자녀 세미나, 주최 한국지역복음화회의(화)목회자녀모임
장소: 오산 광안2도원 원정 강현배 목사 ☎ (03) 688-0550

21(월)~24(목) 전주 복문교회(장우성) 목사 ☎ (063) 251-4841
25(금) 오전 한영신학대학교 총장 한영훈 목사 상설목회연구원장 피종진 목사
28(일) 오후 부천 총회신학교(학교총장 박종두) 목사 ☎ (032) 344-3313
28(일)~33(일) 서울 진영교회(강현배) 목사 ☎ (02) 202-9991

한국기독교찬양치유협의회

찬양치유사

http://www.0675.us

강사 : 총재 음악박사 장 창 윤 목사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문의 및 접수 : 010-5678-9950

장소 : 열린찬양교회(구로보건소 옆)

한국기독교찬양치유협의회 주최 김지수목사 특별초청

2011 대구주암산수양관 2011

춘계축복.치유성회

이름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라(골 1:3)

주최 (2010년 주암산수양관 축복성회) **아래** (장남지수 아들들 마당 성회)

날 짜: 2011년 4월 4일(월) ~ 7일(목) 4일간
시 간: 새벽 6시 / 보 10시 30분 / 저녁 7시 30분(1일 3회)
장 소: 주암산수양관 (대구 달서구 가창면 남천리 216번지) ☎ (053) 768-6205
성회문의: 한국기독교찬양치유협의회 (02) 862-3181 / 010-5678-9950

주최 : 한국기독교찬양치유협의회
http://0675.us http://0675us.onmam.com

CBSTV비전특강 강사 조강수 목사

성령 치유대성회

준비위원장 **강사**

장창윤 목사
한국기독교치유연합회 총재
열린찬양교회 담임목사

조강수 목사
CBSTV 비전특강 강사
영문대학교 담임목사

병이든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하고 간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 14-29)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는 못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글썽 CBSTV 비전특강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인공인 조강수 목사의 성령과 치유 세미나를 통하여 영육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미나안내

- 일 시: 1차: 2011년 2월 17일(목) 오후 2시~5시
2차: 2011년 2월 24일(목) 오후 2시~5시
- 장 소: 종로5가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층
- 등록비: 무료
- 문 의: 010-5678-9950
- TEL : (032) 578-8712, 010-7190-2000

한국기독교찬양치유협의회 총재 장창윤목사 2주년축

대구지역찬양치유 축복성회

죽여! 나를 구하소서 내게 약했어! (골 1:14)

회복의 역사
영권회복
인권회복
물권회복

장창윤목사 찬양치유세미나 및 찬양치유 축복성회개경

말씀의 온사
찬양의 은혜
기도의 능력
치유의 기적

일시 제1차 2011년 4월 11일(월)~14일(목) 저녁 8시(1일 1회)
제2차 2011년 4월 18일(월)~21일(목) 오후 2시/저녁 8시(1일 2회)

장소 예수사랑전교회(강제인) (3차 조종재목사) / 문의 010-6307-0675

주소 대구 동구 방촌동 802-28번지 / 강사연락처 010-5678-9950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방촌역 1번출구 명동시장 맞은편 방촌동 800여미터지점
대중교통 버스 동구(방촌역)에서, 612-79, 808, 938, 980, 동구(방촌역)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꿈을 키워주는 사람들’ 초청 오찬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9일(수) 12시부터 2시간 동안 일선학교, 청소년센터, 돌봄센터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아동·청소년을 꿈을 키워주기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현장교사, 기간제 및 원어민 교사, 배움터지킴이, 조리사 등 학교관계자와 청소년센터, 아동보호센터 근무자 및 자원봉사자 등 200 여명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박희영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와 시대의 책무라고 언급하면서, 목록히 애 쓰고 있는 참석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초청자들의 사연을 담은 동영상 상영과 영화 'GLOVE'의 실제 모델들과 대청도 섬소년 백진성군 등의 훈훈한 이야기도 소개되었다.

서해 5도 대청도의 섬소년 백진성(19세)군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해병대 군인의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한 결과 서울대에 당당히 합격하고 훌륭한 교육학자'가 되고자 하는 희망을 소개했다.

청각장애 야구부 학생들의 지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아이들

도에 헌신해온 서문은경 교사는 소극적인 한 청각장애 학생이 야구부 활동과 따뜻한 인성교육

을 통해 밝고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하게 된 이야기를 소개했다.

경기총 2011 조찬기도회 가져

「김문수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행복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



경기총 총회장 이재창 목사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이하-경기총)는 지난 7일(금) 오전 7시에 수원 라미다 프라자호텔에서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

를 비롯 김상곤 교육감, 김태명 수원시장과 교계 지도자들 1,000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경기총 총회장 이재창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각계 각 층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게 된 것을 감사드린 다며, 지난해 G20 정상 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력을 세계에 높였다.

아울러 스포츠, 문화, 과학 기술에서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올해에도 보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한해가 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31개 시, 군, 1,100 만 명, 기독교인 350 만 명이 함께하고 있는 경기도는 한국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조찬기도회 자리를 마련해준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감사하며, 경제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도와 대한민국 발전 한반도 형화를 위해 기도해주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올 한 해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주시고 도민의 행복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다.

이날 김태명 수원시장은 “사람이 반기는 후면시티 수원”에서 경기도 지도자들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110만 수원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지난해 국내의 적으로 많은 성과와 변화가 있었던 해에 혼란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된 것은 교회를 초월 목회자와 교계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가와 경기도 발전을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뤄 냈으니 금년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게 됐다고 말하고, 올 한 해도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

탁했다. 준비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경기총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경기도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도시로 성장하고 한반도의 경제와 평화를 발전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의 대치와 갈등 속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때 경기총이 경기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민족의 평화와 인성을 위한 화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보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며, 경기총 조찬기도회가 한국 교회와 민족을 감동시키는 눈물과 은혜의 기도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날 예배는 소강석 목사(준비위원장)의 사회로 김영진 목사(상임회장)가 기도, 김정일 목사(서기)가 성경봉독, 새이레교회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김봉태 목사(공동회장), 최승균 목사(공동회장), 유만석 목사(부회장)가 순서를 맡아 국가안보, 대통령, 경기도 도지사와 기관, 경기도 복음화위해 특별기도를, 서정달 목사(공동회장)가 합심기도를 인도하고, 총회장 이재창 목사, 김문수 도지사, 김상곤 교육감, 염태영 수원시장이 환영인사를 했다.

또한 하재인 경기도의회 의장, 이강덕 경기지방 경찰청장, 차명진 국회의원(한나라당), 김진표 국회의원이 축하를, 이순길 목사(사무총장)가 내빈소개를, 정찬수 위원장의 사회로 김영진 목사(상임회장)가 기도, 김정일 목사(서기)가 성경봉독, 새이레교회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이영훈 목사



▲경기총 조찬기도회 후 기념촬영

무당에 속아 177억을 날린 최 모여인

무당 “재혼한 남편 전 부인이 저주... 천도제 지내야”

3년간 1~2일마다 1000만~2억 5000만원씩 419차례에 걸쳐 172억 원 공금 횡령 직후 부하직원 전산 조작과 전표 위조 도와 50대 여성이 무속인에게 속아 자신의 전 재산뿐 아니라 30년간 일해 온 직장에서 횡령한 공금 170억여원마저 모두 날려 쇠고랑을 찼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종합병원 경리부에 근무하는 최모(53·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하고 직장 동료인 박모(4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최씨에게 177억원을 받아 쟁전 혐의(특정경제범죄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무속인 김모(51·여)씨도 22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 최씨는 무가지에서 ‘용한 점쟁이 선녀만신’이라는 김모씨의 광고를 보고 김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점집을 찾았다.

당시 최씨는 3년 전 결혼한 남편이 머리를 다치고 양가 부모의 건강도 나빠진데다 설상가상으로



사업마저 실패한 상태였고, 김씨는 “운명이 아난데 결혼을 해 이런 일이 생긴다”며 “남편의 전 부인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최씨는 전 재산 5억원을 가져다 바쳤고, 2008년 6월부터는 자신이 일하던 병원의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최씨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환자 진료비가 월 2회 병원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자금관리 부서로 넘기기 전에 가로채는가 하면, 하루 5000만원 정도인 병원 운영자금 중 시설유지비 등의 항목을 2000만원 가량 부풀려 자금 부서에 청구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최씨는 3년간 1~2일마다 1000만~2억 5000만원씩 419차례에 걸쳐 총 172억원을

빼돌렸다 김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

최씨는 10년간 같이 일했던 박모(43)씨가 지출결의서와 전표 등 회계 서류 조작을 도와 3년간 횡령 사실을 들키지 않았지만 공금이 비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병원 직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달마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범행 기간에 3차례 가량 외부 회계법인 감사와 병원 자체 감사가 있었지만, 직속 부하직원이 전산 조작과 전표 위조 등을 하며 협조한 덕에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기도를 중간에 멈추면 이제까지 쌓인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와 재앙이 생긴다”는 김씨 말에 걱정이 돼 범행을 멈출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수년간 점집을 운영한 점에 주목하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의 계좌 추적과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 중에 있다고 했다.

2011년 신년하례회 가져

강신숙 목사 영육건강선교회 발족

사론지구촌예수교회 강신숙 목사는 1월 21일~28일, 8일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사론교회 본당에서 기독교연예인목회자부흥사건교협의회(이하기.연.목.부.선.협) 대표회장 강신숙 목사 주최로 2011 신년 축복성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신숙 목사는 은반 25집 출판기념회를 갖는 동시에 문화예술킨학원 12주년을 맞았으며, 경희대학 한방학과 교수 정성철 집사를 영.육 건강선교회를 발족한 자리에서 대표회장 임명했다.

강신숙 목사는 22일 교회 본당에서 기독교연예인목회자부흥사건교협의회, 한국천양교역자협의회, 강신숙문화예술킨학원, 영육건강선교회

신학원, 영육건강선교회, 기독교성헌선교회, 등 5개단체 연합으로 2011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이날 발족된 영육건강선교회 대표회장 정성철 집사는 경희대 한방학과 교수이며 기독교신우회 회장과 팀장을 맡고 있으며, 사론지구촌예수교회를 섬기고 있는 집사 이다. 이번 행사는 영육건강선교회 대표 정성철 집사, 기독교성헌선교회와 사론조경 대표 장봉섭 장로 등이 협찬했다.



▲강신숙 목사(사론지구촌예수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주안교회

교회사명선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1. "민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민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2.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이 회복되어 주님께서 주신복을 누립니다.
3.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행복하게 해줍니다.

주일에배 시간 장소

요 일	예 배	시 간	장 소
주 일	낮예배	1월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저녁예배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수요예배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금요예배	저녁 8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청년부예배	오전 5시	5층 영산강홀
주 일	대학부예배	오전 5시	5층 두란노홀
주 일	유치부	1월 오전 9시 30분	2층 뽕밭방
		2월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유초등부	1월 오전 8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월 오전 11시 30분	5층 아동센터
		3월 오후 2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중등부	오전 9시	2층 영산강홀
	고등부	오전 11시	2층 영산강홀
주 일	영약예배	오전 1시 30분	5층 두란노홀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북항주택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 덕 교 회

표어 : 말씀의 은혜 안에 행복한 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 무 장 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교육 전도사 : 이광수

예배안내 : 주일에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밤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전화 : 041)853-9966 855-0691
홈피 코헬렛 http://lov153.cafe24.com



예배모습



담임 권세능 목사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구 분	시 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예배	오전 9:0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3:30
금요 철야 기도	저녁 9:00	청년회모임	토 저녁 8:00

451-806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245-4
☎. 031)656-5830
H·P 010-8585-9137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객관근 목사
(본지 운영이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4) 가미리엘의 충고를 들으라

성경: 사도행전5장33절-42절 찬송가 389장

베드로는 바리새인들에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포합니다. 이를 듣고 격분한 바리새인들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가미리엘이라는 사람이 만일 사람에게 난 집단이라면 사라질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집단이라면 너희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가미리엘의 충고를 들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가미리엘의 충고를 들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욕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믿음이 충만한 가미리엘과 같은 사람들 또는 목사님의 충고를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가진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 하나님의 일꾼은

성경: 사도행전6장1절-14절 찬송가 346장

오늘 말씀은 처음으로 교회의 조직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와 봉사를 병행하기 위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 명'을 선택하여서 봉사의 임무를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에도 같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쓰실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일꾼으로서 부족하지 않은 자를 사용하신 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6) 하나님의 가정은

성경: 사도행전6장8절-15절 찬송가 473장

본문은 스테반 집사가 체포당하여서 공회로 출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모습에서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은 각 사람들의 얼굴 빛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 빛에는 살기와 노기를 띤 얼굴 빛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말하는 불법을 전한다고 하는 스테반 집사는 천사와 같은 얼굴 빛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은 노기와 불만과 불평과 다툼의 모습이 드러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이 스테반 집사의 얼굴 빛처럼 참된 평화와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7) 진리를 쫓는 가정

성경: 사도행전7장1절-53절 찬송가 184장

본문은 스테반 집사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하는 부분입니다. 스테반 집

사는 구약의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선지자들을 배척했으며, 이제는 산헤드린(공회) 또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배척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다운 신앙을 저버리고 형식적인 예배와 율법 준수에만 매달리고 있는 문제점을 그들에게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주일이 되면 그저 습관처럼 교회에 나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주는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헛된 신앙을 좇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좇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8) 겸허한 가정은

성경: 사도행전7장54절-60절 찬송가 347장

본문은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스테반집사가 논리 정연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가면서 자신들의 위선과 악행을 정확히 지적하자 큰 충격과 자책을 받았으며 자신의 수치가 드러남으로 분노가 일어나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헛된 신앙을 좇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주의 종들의 말을 자신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돌을 던짐으로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고의 말을 받아들이심으로 참된 진리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9) 변화되면 쓰임 받는다.

성경: 사도행전8장1절-3절 찬송가 338장

스테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스테반의 죽음을 보고 있는 한 청년을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살인자요 핍박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사울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사울처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의 가정되길 소망합니다.

10) 도망자에서 복음자로

성경: 사도행전8장4절-8절 찬송가 447장

초대교인들은 유대인들과 사울의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졌습니다. 살기 위해 흩어졌지만 시간이 지나 그들은 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자가 아닌 복음자가 되어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초대

교회는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 될 수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상황과 형편을 뛰어 넘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정처럼 복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와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1) 시몬이 우리 모습이다.

성경: 사도행전8장9절-24절 찬송가 305장

마술사 시몬은 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세례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인들에게 기도하며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시몬역시 돈을 사도들에게 주며 성령 받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돈을 거절하며 완악한 시몬의 마음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시몬을 책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헌금과 헌신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았으니 무엇인가를 받기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12) 민감하게 반응하라

성경: 사도행전8장25절-40절 찬송가 427장

성령이 빌립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은 광야에서 도데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간다게의 모든 국교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고 결국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 전도의 한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성령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성령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상황과 형편을 뛰어 넘어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13)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지 말라

성경: 사도행전9장1절-9절 찬송가 453장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등등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의 눈은 멀게 됩니다. 그는 사울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 했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만지심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록 눈은 멀어 사울동안 식음을 전폐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과정에서 만나는 고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멋있게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믿고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14) 아나니아

성경: 사도행전9장10절-19절 찬송가 518장

사울은 사울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그 누구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메섹으로 함께 온 동료들 역시 그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절을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아나니아처럼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용기와 회망을 주며 우리들의 가정 때문에 고통에서 회복되는 가정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제28차 성가대지휘자단기대학, 목회자사모 찬양대학 모집

"한국교회 6만 교회마다 찬양사를 과송하자!" 라는 기도로 전문 찬양인을 양성하는 서울중앙예수원 프레이즈 학부에서는 2011년도 1월1일부터 2월23일까지 2개월 동안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 솔리스트를 위한 "성가대지휘자단기대학"을 개강했다.

또한 올해는 목회자 사모 찬양 반을 추가로 개설하여 "찬양인도반"이 개설되어 그동안 찬양 전문 교육에 목말라하던 목회자 사모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 새롭게 이전한 서울중앙예수원 노량진캠퍼스 새 강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단기과정은 매주 월,화,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주간 음악적 지식과 지휘 그리고 찬양인도의 이론과 실기를 배우게 된다. 찬양대는 합창과는 달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이다. 우리 한국교회의 찬양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채 목회자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지휘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본 단기대학과정을 통하여 지휘자의 성성과 음악적 기능을 연마하여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 대회장 박연훈 회장의 과정 개설이유라고 했다.

주 강사로는 지휘반에 음악과 학과장 유웅장, 명성교회 지휘자 김이규, 서울신대 합창교수 손효동 성악반에는 이진원, 하수연, 김하나 찬양인도반은 박연훈목사, 전아목사, 조환근목사 등이 나섰다. 이번 과정에서 모두 수료증을 교부받으며, 지휘자2급 자격증, 찬양인도자2급 자격증이 수여된다. 2011 제28차 성가대지휘자단기대학, 목회자사모 찬양대학에 참가자들은 좋은 평을 내놓았으며 기쁘고 보람 있는 배움이었다고 말했다.

(02-822-6001) 홈페이지 www.praiseac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복음진리선교”

제3대 총재 이재갑 목사(빛과소금교회) 취임 축하

총재 이재갑 목사
(빛과소금교회)

대표회장 이재원 목사



▲단체사진



▲총재 추대패를 받고 있는 이재갑 목사



▲시모(좌) 이재갑 목사(중) 어머니(우)



사무실 : 402-011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1-3동 441-45

갑절의 능력을 받자!

한때는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우로가 없을 것이라고 평평대던 엘리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긴 능력의 종 엘리야! 그도 이세벨과 같이 극악한 죄인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무지와 화인 맞은 양심은 구원할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되자 첩제에 빠지게 됩니다. 담전4:2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적 공포와 불안으로 좌절에 빠진 엘리야가 왕상 19:8-12 사십 주 사십 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렐에 이르러 그곳 굴에 들어가 유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여 "엘리야야 네가 여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묻습니다. 엘리야의 대답이 절박합니다.

10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라고 오직 나만 남았다는 고백심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 여호와께서 한번 더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 - 지진 - 불 - 불 후에 세마한 소리로 나타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의 종에게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어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무능을 절감하게 하여 고후12:8,9 같이 약한 자 중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왕상19:11-12절은 아합과 이세벨을 이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같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조용한 섭리에 의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뜻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아직도 작은 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상19:14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특심이라고 하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오직 나만 남았다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과 일할 수 있는 등

임용재 장로

강남중앙침례교회



역자가 있다고 위로하며, 3가지를 지시 합니다. 1.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2.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3.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왕상19:15-16).

왕상19:18절에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천 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성도들에게 먼저 확신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함으로 용기를 더하시고 위로를 주심으로 열정을 불어 넣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도탄에 빠져 있습니까? 묵화에 걸림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간절한 심령으로 매달려 기도해 보십시오. 아마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면서 동역자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남겨놓은 칠천 명의 일꾼들이 우리 주위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능력자요, 합입니다. 가르치고 설교 한다는 것! 절대

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teaching 곧 가르침은 - 학문, 지식, 지적 향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preaching**, 설교라는 것은 - 교인을 작성하되 신성 + 인성 = 지휘자의 역할을 하여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 임용재 장로의 2011년 묵화자 출판설교 세미나가 주재별에서 책별로 전환되어 있으며 성경요점정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010-6203-6632, 02-2208-6632(임용재장로)

다음호에 계속

구원론

예수님의 보혈Ⅶ

현병우 목사

임마누엘 영성원 원장
본지 부사장



죄 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요 하나님과 원수 된 자들이요 원수 된 것만 하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니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일 진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영원하신 속죄 피요 놀라우신 사랑이 아니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랏요 왕 같은 제사장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 된 은혜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가령 연약한 육신가운데 어떤 죄와 허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울며 펄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를 지난시간에 말씀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백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나이다. 또 모르는 가운데 얻은 죄와 허물이 있나이다. 아버지여 오직 예수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자백 회개하나이다. 하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파나 회개파에 또는 다른 사이비 이단에 끌려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족하기만 합니다.

요일3:1-10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예수그리스도)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예수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아는 것

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내신바 된것을 너희가 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신 것은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임니다 히2:9-15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이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는 분이십니다.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

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신 것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이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 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예수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우리들)들이 다 하나에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난 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고 또다시 불찌에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사탄마귀 뱀의 독에 잡혀있다는 것)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세력을 잠온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이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라는 말씀은 아브람의 아비인 데라의 육신 아비의 기업을 떠나라는 것이며 부모로부터의 기업을 물려받으면 잠시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게 될지 모르나 영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 집을 떠나면 생명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미리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두신 것과 이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하게 될 것임을 밝히 깨닫게 됩니다(롬 8:17). 이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나라의 영생이요, 이 세상의 부귀영광과는 족히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무한한, 또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람이 육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자, 즉 히브리인(하:이브리는 강 건너 오다의 의미임)이 된 것 같이 오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부활에 연합한 자 됨을 믿으면 역시 아브람처럼 육의 강을 건너 히브리인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적 히브리인입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산 자의 하나님이다

1.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마 22:32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람을 찾아 오셔서 먼저 살리시고 산 자된 아브람을 자라나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람이 기도해서가 아니고 아브람의 행위가 합당해서도 아니며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마 22:32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죽은 자입니다. 행 7:4에 아브라함의 아버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심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버가 죽은 자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 11:32에서는 데라가 205세까지 살았고 아브람이 그 아버지를 떠날 때의 데라는 145세였습니다. (창 11:26 70세에 아브람을 낳고 아브람 나이가 75세 될 때 창 12:4 가나안 땅에 이르렀으므로) 그러므로 데라가 아직 육신의 나이가 205세 되기 훨씬 이전이니

육신으로 멀쩡히 살아 있을 때 아브람이 떠났는데도 행 7:4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가 죽은 자였다고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계시하시나요? 육신은 살았어도 영적으로는 죽은 자된 데라임을 말씀합니다. 왜 죽었는가? 창 11:31 데라가 갈데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란 땅에 주저앉았기에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됐음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버린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산 자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있어야 산 자인 것입니다. 살아난 자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산 자를 장성케도 하고 온전케도 하십니다. 따라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산 자의 하나님이 아브람을 살려 그를 장성시켜 나가시며 또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자신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먼저 말씀으로 살리시고 산 자되게 한 후에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2. 네 본토·친척·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 12:1)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맨 먼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였고 이를 믿은 아브람에게 그 말씀이 역사하시어 아브람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람의 육적인 고향인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옛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면 된, 즉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 됐으니(엡 2:4-6) 우리도 육신 고향인 본토를 떠나 하늘나라 시민으로 사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도 육신의 친척이 육신을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친척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시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되심을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명칭도, 곧 늘 옆에서 돕고 대언해 주며 stand by 하여 위로 상담해

2011 학년도 1 학기 신입입생 모집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음성이 아니면 당신이 만나지 않으면 계속 어둠 속에서 헤메는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신을 기다리는 선지학교가 있습니다.

1. 모집과정

과 정	구 분	수업연한	전형자격	비고
연 구 원	목회신학석사(M.Div)	3년	4년제 대학교나 신학과 졸업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 신학 6년 이수자는 2학년에 편입	주간 : 계절학기(여름, 겨울) 야간 : 월, 화, 목, 금
	목회학석사(M.A.)	2년	4년제 신학교 졸업자 및 동등 자격자	
신 학 원	신학사(B.Th.)	4년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여교역자(B.Div)	3년	고졸 졸업(예정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평신교교육과	2년	학력제한 없음, 졸업 후 신학과 입학자격 부여. 고졸자인 경우는 신학과 2학년에 편입	
	사회복지과	2년	고졸자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2급 자격 취득

2. 전형일정

원서접수 : 연중 계속
원서교부 : 본교 교무과 061)242-1617

3. 제출서류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사진 4매

4. 특전

- 1) 연구원 졸업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받을 수 있음
- 2) 신학과 졸업생은 연구원 과정에 진학
- 3) 사회복지과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 및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케어복지사(민간) 자격 취득

웨스트minster목포신학교

Westminster Mokpo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 학장 : 조광표 박사(D.D.) 연구원 원장 : 모상련 박사(Th.D) 530-03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061)242-1617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만나교회 목포신학교



담임목사 조 광 표

(530-35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전 화 : 061)274-6461 / 학장실 : 061)242-1617
자 택 : 061)274-1801 / 핸드폰 : 011-631-1977

목회자칼럼

목회자가 알아야 할 교회법률(教會法律)

(목회자가 역올한 치리를 받을 수 있으나,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 회의 법에 관하여 (회의 의제 원칙들)

(4). 과반수와 이상 및 이하의 의미.

과반수와 과반수 이상은 어떻게 다른가?
①, 과반수와 과반 수 이상의 의미 : 과반수라는 말은 반을 지난 수 즉 반보다 1이 더 많은 수를 의미한다. 예컨대 100의 반수는 50이요, 과반수는 51이 된다. 그러므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고 한다면 100명 중 51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그렇다면 "과반 수 이상으로 가결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상이라는 말은 ".....부터 시작하여, 그 위로"라는 뜻이다. 즉 과반 수 이상이라고 한다면 위의 예에서 100명이라면 반은 50이요, 과반은 51이므로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면 51명으로부터 52-100명까지 모든 수를 포함(包含)한다.

그러므로 과반수 찬성이나 이상 찬성이나 다 같이 100명중 51명 찬성이면 가결된다. 이상은 51을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반수로 가결된다고 하거나 이상으로 가결된다고 하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고 동일하다. 그렇다면 과반수란 말은 상기 예에서 51을 의미하고 과반수 이상이란 51명부터 시작하여 그 위를 의미(意味)하기 때문에 "과반수로 가결된다"라는 말을 그대로 하면 "51로 가결된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 "과반수(過半數) 이상으로 가결된다"라는 말은 "51로부터 그 위면 가결된다"라는 뜻이 되므로, 다 같이 51로 가결되나 후자(後者)의 뜻이 훨씬 좋을 것이다. 이하라는 의미도 이상과 동일하다. 즉 그 수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하라는 말은 ".....부터 시작하여 그 밑으로"라고 이해(理解)하면 된다. ②, 미만(未滿)의 의미 : 미만이란 말은 그 수에 못 미친다는 뜻으로,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과반수 미만일 때"라고 한다면 100명 중 반은 50이요, 과반은 51이므로, 과반 미만은 50부터 시작하여 그 밑으로가 된다. 만일 반수 미만이라 한다면 반은 50인즉, 50이 못 되고 그 밑으로인 49명 이하를 의미한다. ③, 3분의 2의 의미 : 전술한 바와 같이 3분의 2 이상이나, 결과적(結果的)으로는 같다. 3분의 2 찬성은 산술적(算術的)으로 계산(計算)하여, 소숫점 이하는 사사오입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숫점 이하는 1명을 더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총투표수의 3분의 2의 찬성(贊成)을 요한다"라고 한다면, 56명의 3분의 2는 37.3이기에 때문에 38명이 찬성하여야 가결 된다. 만일 어느 회에서 사사오입 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한 후 37.3을 사사오입 하여 37명이, 찬성 하였음에도 가결되었다고 선언(宣言) 하였다면, 이는 무효(無效)이다. 왜냐하면 단순(單純)한 결의가 명문규정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제안자(提案者)의 반대불가.

장로회 정치원리 중 첫째가 "양심의 자유"이다.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 뿐이시라 그가 양심

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음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정제 1장 1조)라고 하였다. 누구든지 어떤 회의 회원이라면, 회칙(會則)을 준수(遵守)할 권리(權利)와 의무(義務)가 있다. 회원의 일원이 되어 있으면서, 내 마음에는 회칙을 따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회칙은 양심 자유에 의거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양심(良心)이 아니라, 양심(兩心)이다. 어떤 회의 회원이 될 때는, 자기 양심의 판단에 따라 회원이 되겠다고 서약했으면(교인이면 세례사약, 장로, 목사이면 임직서약) 그 서약을 지키는 것이 양심이다. 특히 장로라면 임직서약에서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는가?(합동: 정제 13장 3조 3항). (예신: 정제 12장 1-3항). 교회가 당회의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목사가 강도 한 후에 그 작(장로 혹은 집사)의 근원과 성질의 어떠한 것과, 품행과 책임의 어떠한 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교회 앞에서 피선(被選)자를 일어서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제1항. 신.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信仰)과 행위(行爲)에 대하여 정확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法則)으로 믿느뇨? 제2항. 본 장로회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대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중하느뇨? 제3항. 본 장로회 정치와 예배모범과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목사는 (합동: 정제15장. 제1조, 임직서약). (예신: 정제6장. 제10조, 임직서약). 제1항 서약: 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信仰)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法則)으로 믿느뇨? ②,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중하느뇨? ③, 본 장로회 정치와 예배모범과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라는 불응에 자기 양심자유에 따라 "예" 하였으면,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및 대소요리 문답을 준행하는 것이 양심(良心)이요, 그렇지 않으면 양심(良心)이 아니라, 양심(兩心)일 것이다.

그렇다면 장로회 정치란 무엇인가? 민주적 정치이다. (정치 총론 제5장). 민주정치란 무엇인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즉 회의시에 반대 하였을지라도, 찬성이 많아 가결되

면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이 끝까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의견은 없어지고, 다수(多數) 의견이 전체(全體) 의사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결된 안건(案件)은, 다수 의견(多數意見)이 아니라, 바로 그 회의 의견(전체의 의견)이 되어, 모든 회원은 가결된 안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민주정치 원리요, 장로회정치 원리이다. 그러므로 모든 회원은 비록 자기가 반대하였을 지라도 가결된 후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가결된 일에 적극협력(積極協力)하고 따라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정치원리를 실행하는 장로회 회원의 진정한 양심자유이다. 양심자유를 빙자하여 가결된 후도 순종(順從)치 않고, 계속 반대하는 것은 양심자유가 아니라, 양심(良心)부패(腐敗)요 부재이다. 특히 당회에서 결의하여 제직회로 부의한 안건이라면, 그 안건의 제안자는 당회 결의에 찬성한 사람만이 아니라 당회이다. 즉 찬성한 사람 개인의 제안이 아니라 당회의 제안이 된다. 이 말은 당회회원 전체가 제안자가 된다는 말이다. 당회논의시에 찬반이 있을 수 있으나, 가결되면 그것은 곧 당회의 결의가 되어, 당회원 전체의 의견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직회에 제안한 것은 당회요, 그것은 곧 당회원 전체가 제안자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떤 장로가 당회에서 반대하였으나, 가결되었다면 그 가결된 의안이 당회의 제안이 되어 제직회에 부의되었을 때, 원래 당회에서 반대하던 장로도 이제는 당회원으로 제안자가 되었은 즉, 제직회에서 당회 패처럼 또 반대하지는 못 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안해놓고 자기가 반대(反對)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안한다는 것은 모순(矛盾)이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직회가 제안한 안건은 공동의회에서 제직들이 오직 통과에만 힘을 것이지, 반대하거나 수정하는 의안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은 같은 이치이다.

예컨대 당회의 결의로 제직회나 공동의회에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장로는 제안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제안한 것을 통과 시키기 위하여 힘을 것이요, 자기가 제안한 것을 부결시키거나, 수정 시키고자 하지 못한다(반대하지 못함). 같은 원리로 제직회가 공동의회에 제안(提案)한 안건(案件)이라면, 제직회원은 통과(通過)되도록 힘 쓸뿐이지,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意見)을 제시(提示)하지 못 한다.

우리 헌법은 이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예컨대 제직회가 예산을 편성하여 공동의회에 내어놓았을 때 제직회원은 그 예산의 통과하는 일에 힘써지지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못한다는 뜻을 분명(分明)히 하였다. "제직회는 매년 말(末) 공동의회에.....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익년도 교회경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여 통과하며....."라고 하였다(정제 21장 2 조 3항 (합동). 즉 제직회원은 제직회가 편성하여 공동의회에 제안한 예산안을 통과하도록 해야한다는 뜻이다.



이원석 목사

은광교회 담임,
본지 교문

선교(宣敎)인가? 선교(善敎)인가?

한국교회는 서구 선교사들이 한국을 선교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자생적으로 중국에서 복음을 영접하여 귀국한 후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순교하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경이적인 교회성장을 이루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기독교의 형성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기독교는 한민족의 새로운 종교로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 할 수 있다.

첫째, 한민족의 강렬한 영적 감수성과 둘째, 한민족의 미래지향적인 창의성 등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동북아시아에 그 중심 축에 있는 중요한 국가의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제 2위의 영적 지도적 위치에서 매우 큰 비중을 갖는 교회가 되었다. 비록, 동북아시아의 끝자락에 그나마 분단된 작은 땅 위에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미래 국제사회를

선진적으로 이끌어 가야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이쯤에서 선교에 대한 정체성 등을 보다 분명하고 성숙하게 재 정립해야 할 것이다. 선교(missions)는 바에주의(humanism)와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와 바에주의를 같은 맥락에서 오해하고 있지만 선교(宣敎)와 선교(善敎)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선교(宣敎)는 복음의 뜻이 아니고 열매인 것이다. 바에주의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대 위임령인 영적사명인 것이다. 이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이타적 희생은 필수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한국교회의 선교는 이 영적 열매가 잘 결실되도록 선교의 개념, 이론, 전략 등을 전문성있게 지속적으로 상호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느 사회나 조직에도 있듯이 한국교회 안에도 이

이준철 목사
합림리교회

선교를 자신의 세속적인 욕구충족의 수단이나 방편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있는 듯하고 또는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도취적이거나 아전인수격으로 선교를 오도하면서 한국교회 전체의 영적수준을 평가절하시키는 영적 문제아들도 있다. 인류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시대적인 영적 추세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서진(西進)을 거듭해 오면서 지금 한국교회 위에 위임되어 있다. 이것을 한국교회는 강한 영적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더 이상 서진하지 않고 한국교회의 사명으로 지속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씨리올타리

잘못된 이기심이

신 15: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을 어디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게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퍅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흡혈 박쥐는 박쥐의 일종으로 특이한 체질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동물의 피를 빨아 먹고 사는데 이빨만 계속 해서 먹이를 먹지 못하면 자기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며 삼시간에 체중이 25%나 줄어들면서 60시간 정도 지나면 죽어버린다. 따라서 먹이 사냥에서 허탕치고 돌아온 박쥐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다른 동물이에게 먹이를 구걸한다. 그러면 그 동료 박쥐는 자신이 먹은 것을 토하여 배고픈 박쥐에게 줌으로

써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준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나 먹이를 공급해 구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서로의 생명을 돌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이좋게 먹이를 나눠주는 데에 하나의 규율이 있다. 그것이 동료가 위기에 처하여 먹이를 구걸했을 때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 박쥐에게는 그가 어떠한 위기에 처했더라도 결코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먹이를 나누어 먹는 것 동료들 속에서 구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흡혈 박쥐가 살아가는 비결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피로 형성된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가 하나 되지도 못하며 함께 나누지도, 또한 서로의 어려움을 구해주지도 않음으로써 박쥐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왜 그런가? 이는 자기 자신만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기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기심에 따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발등을 스스로 찢고 있는 행위임을 아는가? 각 개인에게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

오늘의 모든 것이 생각대로 잘 되어 풍족한 삶을 누리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 그 입장이 역전되어 빈털털이가 될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가 그 동안 이웃을 외면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그 누가 어려움에 빠진 그를 돌아보겠는가? 우리는 베푸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주 안에서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는?)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전성서수원원)

www.scogop.net

성령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배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예배	주일	오후 3:00	이전 수련원
유치부예배	주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예배	주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성전
스페인어예배	주일	오후 1:30	지하성전
새벽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성전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2시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Bishop)

담임목사: 이정민 목사(Mi nister)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절)

감독 이철재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원원(이전 031)634-3590
부설: 새생명 어린이집(02)464-3107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일교회



담임 이이중 목사

(본지, 상임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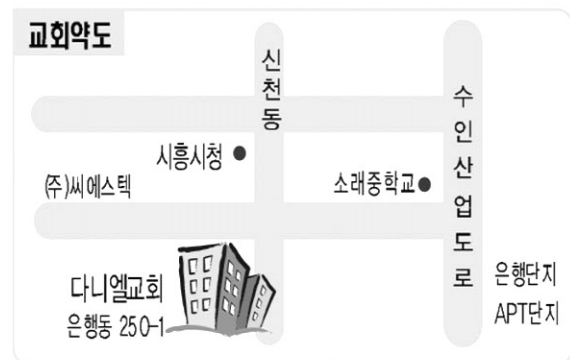
원로: 김영환 장로

장로: 우만호 장로, 신호균 장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전화 031)714-1426, 7236

대한예수교장로회 다니엘교회

표어: 말씀이 응하는 교회(눅4:21)

담임 고성규 목사
(본지 운영이사)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50-1
http://daniel.onmam.com
교회 031)313-3454, 312-2613

대한예수교장로회

핵심장대현교회

Haeksimiangdaehyu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선 목사

예배시간안내

기반	시간	장소	기반	시간	장소
유치부	주일오전 9:00	4층	장년부	주일오전예배 11:00	2층 대예배실
유년, 초등부	주일오전 9:00	4층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2층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00	
	주 일 오후 3:30	대예배실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00	
청년부	토요일 오후 5:00	4층	새벽기도회	매 일 새벽 5:00	
		4층			
셀 예배	설장대현 금요일 오전 10:00 오후 8:00	2층 대예배실	각 셀 예배	셀 2강반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50-3호
담임 이선 목사 전화 02)430-9107, 02)3402-2714

“성경으로 본 건강학” 자신에 맞게 꾸준히 하라!(27)

자극이 없으면 빨리 늙는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실이니라”(히 12: 6)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전 9: 27) 육신중독의 신기록은 조용한 연습장에서 수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수많은 관중들의 환호 속에 다른 선수들과 치열한 경쟁을 함으로써 기록은 갱신된다. 학생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기간도 학기 말 시험이나 리포트 마감시간에 압박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이다. 배우들이 가장 감동적인 연기를 할 때는 리허설에서가 아니라 많은 정경들이 숨막힐 듯 지켜보고 있는 생생한 공연장에서다. 이런 의미에서 스트레스는 일의 추진력을 높여주고 인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깨우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과도한 긴장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스트레스는 과의 요소로 작용해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많다. 반면에 할 일이 없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적은 것도 불행한 일이다. 직장인의 경우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능력과 의욕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긴장이 풀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노화현상이 촉진되고 병이 생기기 쉽다.

빈둥거리며 놀고 먹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비해 몸이 허약하고 수명이 짧은 것도 이 때문이다.

남자의 경우 실직이나 퇴직 후 1~2년 사이에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높고 사망률이 급증한다고 한다. 직장에서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도 일에 쫓겨 한창 바쁜 때보다 일이 마무리되어갈 무렵 긴장이 풀렸을 때에 많다. 팽팽한 긴장이 유지될 때는 몸과 마음이 활성화되고 저항력이 높지만 긴장이 완전히 풀리면 신체의 균형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너지는 경우가 있다.

마치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갑자기 놓으면 큰 충격이 일어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긴장은 서서히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차가 정지하기 위해서는 서서히 속도를 줄여야 한다. 최고의 속도를 내다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과로는 무조건 된다고 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색다른 도전과 자극이 필요하다. 누적된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사람의 유형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정신

노동자의 경우는 운동이나 등산을 권장할만하고, 육체노동자의 경우는 독서나 음악감상이 바람직하다. 목욕이나 샤워, 산책의 경우는 두 그룹에 다 효과가 있다. 심상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지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육체적 자극이 필요하고 육체적 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지적자극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평탄한 신앙생활은 아무래도 감각이 없고 은혜가 적다.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도전과 자극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내적 잠재력과 달란트는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다. 우리 스스로를 “주님을 신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정신적으로 느슨해지면 정욕과 탐심이 꿈틀거리기 마련이다.

성군 다윗의 간음죄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삼하 11장). 분명한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에 주신 가능성을 꽃 피우려면 반드시 “꿈”의 동등자와 “도전”의 회초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무사인일의 늪에 빠져 스스로 채찍질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회초리를 드신다.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자극이 없으면 금방 나태해지는 인간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가끔 징계의 회초리를 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황성주 박사 저 건강학중에서

희망을 먹고 살자

사람은 성장해 가면서 가졌던 꿈과 희망이 많이 변한다. 나도 그랬다. 어릴 적 나의 꿈은 소박한 시골 학교 선생님이었으나 지금은 그 꿈과는 다르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 꿈이 비록 실현되지 못했으나 불혹의 중반에 접어든 지금 나는 또 다른 꿈과 희망으로 가득차 있다.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에서 말한다. “희망이 없는 것은 최악이다.” 이 말이 더욱 가슴을 정하게 만드는 불혹의 중반이다. 자칫 권태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자기상실의 무능을 하소연하며 목표 없이 인생 길을 걷기 쉬운

나이다. 자녀들 뒷바라지에 자기 자신을 뒤돌아 볼 여유조차 없는 나이다. 심각한 자기 포기 현상에 중독되기 쉬운 나이다.

비록 인생의 중반을 넘어 알 수 없는 중추역을 향해 가속도가 붙어 달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희망을 갖자. 더 큰 희망을 가져 보자.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사느라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으면 이제부터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자. 그리고 희망을 가져 보자. 설령 그 희망이 꼭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력



해 보자. 이렇게 하면 중년은 황금처럼 빛날 것이다. 희망은 삶의 의미요, 살아 있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매일매일 희망을 먹고 희망을 심어 나갈 때 분명 광명의 햇살이 반겨 주리라 확신한다.

의료선교로 300명을 치료 “태국을 복음화 하자”

2일부터 8일까지 치앙라이 김성희 선교사 센타를 기점으로 300여명을 치료

태국 최 북쪽지방 치앙라이 김성희 선교사 센터를 기점으로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몇 군데 소수부족 인들의 진료로 300여명이 치료받았다. 아웃리치 팀은 미국 하와이 코나에 위치한 YWAM 선교단체이며 제자훈련학교(DTS- Discipline Training School)는 태국으로 선교활동을 했다. 이슬 YWAM(Youth with A Mission, 예수전도단)은 초교과적인 국제 선교단체이며 “하나님을 알고(To Know God) 하나님을 전하자(God to be Known)”라는 주제로 온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는 과업에 참여하고 있다.

YWAM의 DTS훈련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destiny)이 성취되는 것을 돕기 위한 훈련이다. 또한 DTS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경험하며 그분의 성품과 길을 배우는 것과 하나님을 닮은 성품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데 있다. 이들 DTS는 강의와 전도 여행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처음 3개월(12주)은 강의(Lecture)기간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 강사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받았으며, 나머지 8주는 전도 여행(Outreach)기간으로, 강의 기간 동안 배운 것을 선교 현장에서 적용, 실천하게 된다.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알고, 개인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

이들 팀은 현재 8주의 전도여행 기간 중에 있고, 특별히 태국을 향한 마음과 부르심을 받고 18명의 팀원들(아이들 6명 포함)이 함께 지난해 12월 말에 태국에 도착했다. 처음 도착한 방콕 YWAM Bangkok 국제본부에서 3주를 보냈으며, 대학 캠퍼스에서 일대일 전도지역과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 공부와 중보기도를 함께 하는 가운데 학생들과 교제할 수 있었다.

이들은 화요일에배모임에서 간증을 나누고 스킷 드라마나 공연을 통해 우리의 삶과 문화를 함께 나누기도 했다. 그 외에 태국 현지 목사들과 함께 빈민가 지역과 길거리 전도, 빈민 가정방문을 통해 크리스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그들의 열정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Ruth Center(루트 센터)와 함께 하면서 현지 노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또한 태국에



▲태국 의료선교 중 기념촬영



▲태국에서 의료선교로 진료를 하고 있다.

넓게 퍼진 불교문화와 생활모습을 알고 이해할 수 있었다. 아울러 치앙라이에서는 어린이 전도협회(CEF)와 Living Water House를 통해 태국의 어린이지역과 병원지역을 함께 도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선교팀들 역시 사랑받는 귀한시간을 보냈다.

미얀마와 라오스 국경 근처의 치앙센으로 이동하여 Golden Triangle를 바라보며 세 나라를 향해 중보하고 매공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중보 했다. 그 후 치앙센에 위치한 도이잔 초등학교와 후이아끼안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280명의 아이들에게 영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간식을 나누면서 재미있는 풍선아트와 예쁜 Face Pairing(얼굴그림)을 선물하는 시간을 통해 함께 웃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 치앙라이에서는 가난한 출애굽 센터에서의 의료사역을 통해 산간

지역에서 내려온 태국현지인들의 육체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그들의 영적치유도 함께 일어나기를 기도했다. 한국에서 온 한의사와 미국에서 온 카이로 프랙틱 의사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한 분 한분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섬기는 귀한 시간을 가졌었다. 이제 치앙라이-치앙마이-방콕의 사역 일정이 더 남았다. 짧은 기간이지만, 태국 사회와 세계의 미전도 종족에게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풀어주도록 힘쓰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태국뿐만 아니라 열방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기를, 아울러 태국에서 그 축복이 마음껏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했다. 태국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보여준 섬김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캅쿰가 ~ 감사합니다.

치앙마이 전승주 기자(저지스타임즈 CRJ방송 태국지사)

영광기업이 각 교회에 드리는 특별선물!!!

전자동 디지털 칼라주보복합기

***세계최초 2도 칼라 인쇄기 출시!**

PC형주보인쇄기 **비용절감 90% 처리속도 100배!!**

최고 90% 이상의 비용절감과 제1인기 인쇄기·복사기·프린터 기능을 동시에 한대로 갖춘 **고효율성!** 뛰어난 내구성과 고해상도의 다양한 컬러출력!

2011년 신제품 출시

※전국 200여개의 체인점이 있어서 A/S(책임보장)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바로 처리해드리기 위해 010-3651-8572로 연락 주십시오.

세계최초! 세계최저!!

600~700만원 하던 기계를...

200만원대 출시기념!

가격은 흑백, 품질은 컬러!

이미 2,000여 교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A3를 한번에 자동으로 양면을 컬러/흑백, 복사/프린트/스캔 가능한 **슈퍼 복합기 ₩6,600,000**

₩2,990,000

세계 최초 1m 20 출력

주보 2단 4면, 3단 6면, 4단 8면(복사, 출력) 가능

₩1,595,000

₩890,000

인쇄 + 복사 + 스캔 + 팩스 = 하나로

동급 최고의 인쇄 속도를 지원하는 콤팩트한 디자인의 **주보용 컬러 레이저 복합기**

A3 20매

컬러 복사기

컬러 프린터

주보 인쇄기

스캐너

흑백 복사기

흑백 프린터

팩스 (옵션)

양면 (옵션)

교회의 모든 인쇄물을 한 대로로 O.K! A3 한번에 자동 양면

중첩제본 & 접지기

B5-A3까지 중첩제본 접지

1장 이상의 주보, 교재, 책자 등

20매 80매까지 가능

주보접지기

2,3,4단 주보 한번에 접지

접히는 간격조절 가능

분당 120매 접지

Color200

교회의 모든 인쇄물을 한 대로로 O.K! A3 한번에 자동 양면

세계최초! 세계최저!!

600~700만원 하던 기계를...

200만원대 출시기념!

가격은 흑백, 품질은 컬러!

이미 2,000여 교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A3를 한번에 자동으로 양면을 컬러/흑백, 복사/프린트/스캔 가능한 **슈퍼 복합기 ₩6,600,000**

₩2,990,000

세계 최초 1m 20 출력

주보 2단 4면, 3단 6면, 4단 8면(복사, 출력) 가능

₩1,595,000

₩890,000

인쇄 + 복사 + 스캔 + 팩스 = 하나로

동급 최고의 인쇄 속도를 지원하는 콤팩트한 디자인의 **주보용 컬러 레이저 복합기**

영광기업이 각 교회에 드리는 아주 특별한 혜택 다섯가지

- 1 디지털 칼라복합기** 컬러/흑백 복사, 프린터, 스캔, 팩스기능
ok3530 1,595,000원 ➡ 605,000원(D/C) ➡ 990,000원 행사기간 중에 주문하시면 100,000원 더 할인해 드리고 휴대용 워크 1set S.V.C (WIRELESS AMPLIFIER SPEAKER)
- 2 디지털 흑백복사기 특별행사** 분당21매 A3까지 /양면,ADF(옵션)
bh-211 ➡ 기본 특별할인가 ₩ 1,430,000원 (소비자가격 ₩2,860,000) (50% D/C)
- 3 디지털 칼라복사기 특별행사** 컬러/흑백 복사, 프린터, 스캔, A3까지
BH-C200 본체 ➡ 특별할인가 ₩ 2,990,000원 (소비자 가격 ₩6,600,000)
①스캐너 set1대 ②인터페이스(컬러/흑백) 1set 무료 증정 (스캐너와 프린터가 옵션이었는데 이번 행사기간 중에 무료 증정)
※칼라 토너가 싸들음이 아닌 약30,000장 정도 사용 가능한 정품(正品) Full Set (검정, 노랑, 빨강, 파랑)무료 Setting
- 4 PC형 주보인쇄기** 분당70매~170매까지 인쇄 가능
컴퓨터에서 주보를 제작하여 직접 인쇄기로 연결되는 최신형 주보 인쇄기
DP-3217IP ➡ 특별할인가 ₩5,900,000원 (소비자가격 ₩10,285,000)
DP-3927IP ➡ 특별할인가 ₩7,600,000원 (소비자가격 ₩12,100,000)
- 5 세계최초! PC형2도 칼라주보인쇄기** 분당60매~150매까지 인쇄 가능
조작이 간단하고 드럼2개를 넣은 상태에서 단색, 2색, 검색으로 인쇄
고해상도의 2도 Digital 인쇄기로 비용 : 시간절감의 효과를 한번에 **O.K!**
해오름교회 최낙중목사님, 목포사랑의교회 백동조목사님, 목동능령교회 이동석목사님, 선린교회 김요셉목사님, 화평교회 이재욱목사님, 전주양정교회 박재신목사님
사용하시며 자신있게 추천해드립니다 !!

※ 모든 제품은 행사 기간 내 주문에 한해서만 할인 가격에 드립니다.

주보 인쇄기 보급 5,000대, 전자동 디지털 칼라 주보 복합기 2,000대 기록 달성! 영광기업을 사랑해주신 교회와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주)영광기업 대표이사 장영영 장로
H : P : 010-5779-0691, 010-3651-8572

주식회사 영광기업 | ☎1588-0691
Glory Enterprise Co., Ltd. | www.jubo114.com

총로전시장 ※50여종의 기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51-3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앞)
Tel. (02)764-5890~2 Fax. (02)764-5893 공장. (032)551-4114

군 병사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김용호 목사 내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용기를 주고 있는 아내의 내조가 힘이 되었다는 김용호 목사」

▷ 처음 개척당시에 김 목사님의 사역의 현장은 정말 꺾이요, 사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정말 주님을 모르고 말라 죽어가는 병사들과 사람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사역자가 되려면, 그 아픔을 겪은 고통과 연단의 시간이 얼마나 크고 깊었을까.. 또한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고생이 이면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 예 제게 가족이란 사랑하는 아내와 능률한 아들 요한이, 예쁜 딸 기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소중한 인연인 민경분 집사님, 이렇게 5명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가족들에게 가장 미안한 부분은 바로 경제적인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내에게 월급봉투 한번 제대로 내민 적이 없었으니, 말이 남편이고 아버지이지 고생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때면 마음이 편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청빈하게 살아야 할 목회자이기에 항상 배우르게 먹이지도 못하고 따뜻하게 입히지 못하고..하지만 언제나 '우리 남편이 최고야!',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하며 묵묵히 따라 와준 가족들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사역만 골라서 한 저 때문에 고생했었던 제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처음 개척당시에 제가 신학교

에 가고 있을 때 여자 혼자의 몸으로 교회를 지키다 동네 정신병자에게 칼로 살해당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6개월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할 땐 제대로 먹지를 못해 병이 났었지만, 기도로 이겨내고 처음 군부대 와보니 군인이족들 등상에 마음고생, 몸 고생에.....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6년 이상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교회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두 팔 걷어붙이고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천사 민경분 집사님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정말 누구하나 알아주는 자리도 아니고 상을 주는 자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업인 확일일도 미뤄놓으시고 교회의 일이라면 정말 헌신적인 도움을 주시는 집사님은 정말 고마우신 분입니다.

▷ 고생도 많으시고 탈도 많으셨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가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터는 본격적으로 목사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저희 화랑교회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문화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 탈무드 이야기 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그네가 길을 걸다가 길가에 나란히 진흙 두덩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선 불쾌한 냄새가 나고, 다른 한쪽에선 향기로운 연꽃 향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진흙덩이인데 각각 다른 냄새가 나자 이를 궁금하게 여긴 나그네가 진흙덩이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해서 너희 둘은 같은 진흙이면서 각각 다른 냄새가 나는 것이



▲김용호 목사 부부

냐?" 그러자 연꽃 향기가 나는 진흙덩이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둘은 같은 진흙덩이이지만 제 옆의 진흙덩이는 냄새나는 화장실 근처에서 퍼 올려진 것이고, 저는 향기로운 연꽃 밭 근처에서 퍼 올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흙덩이처럼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때문에 병사들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복음이 담긴 행사를 교회에서 꾸준히 지속적 으로 열어 교회 문턱을 낮게 하고 같이 기도하며 기독교 문화에서 계속해서 생활하게 함으로써 병사들에게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번 행사 때마다 먹거리와 즐거운 놀이가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것도 보통 먹거리가 아니라 정말 풍족하고 병사들이 배부르게 먹고 배를 두드리며 막사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먹는데 정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하여 삭막하고 메마르고 서늘한 환경에 대한 불신으로 마음 편한 날 없는 병사들에게 정말 마음 편히 먹고 마시며 즐기며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장소를 교회가 되게 함으로써 교회란 사회에서처럼 딱딱하고 권위적인 곳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란 것을 인식시켜 주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WWW.JTNTV.KR WWW.CPJ.KR
방송 신화/선교 참고



▲동방여고 순회 위문



▲동방여고 순회 위문

지난 한해 863명의 고아를 수출한 대한민국

지난 1월 31일 미국 국무성이 지난 한 해 동안 세계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의 통계를 국가별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입양된 아이들은 1만5천 명이 넘었다. 그 중에 1위는 중국(3401명), 2위 이디오피아(2513명), 3위 러시아(1082명), 4위(863명)으로 나타났다. 다행인 것은 그동안의 발표에 비해서 한국 어린이의 입양이 줄었다는 것이다. 한 때 불명예스럽게 1~2위를 차지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4위로 내려앉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4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럽고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국가의 위상을 고려할 때 과연 이 통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후진국인 인도나 필리핀의 경우도 불과 200여명 남짓한 아이들이 입양되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수치로 단순히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입양의 이유나 조건, 상황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선진국, 혹은 OECD나 G20의 회원국임을 자처하고 있는 우리의 두 얼굴을 보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러한 우리를 알아달라고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에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다. 또한 그들 사회가 완전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는 것이 단지 경제적 능력만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력에 비례한 사회적 공동의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희생과 노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데, 우리의 현실은 선진국으로 분류되기를 원하

면서도 사회적 공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거나 아직 그만한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무감각하다는 것은 의식이 만들어져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 여력이 없다는 것은 자신 외에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정신적인 준비가 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닐지. 그만큼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과 사회 전체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각각의 책임에 대한 의식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정치권은 자신들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급급해서 사실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무상급식이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상이라는 말은 함담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사회적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는 의미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공적 책임이 전제되지 않는 무상의 의미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마치 자신의 주머니에서 꺼내서 나눠줄 듯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지난해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만 863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그 밖의 나라로 입양된 아이들까지 생각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수가 지금도 수출(?)되고 있다는 말인데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사회적 책임을 국민이 함께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아이들에 대한 책임 역시 우리들에게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도 사회적 책임의식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직 자신들의 목적에만 눈이 어두웠는가? 기억으로는 1990년대 중반기에 고아수출문제를 정치권에서 여론화 시켰던 것 같다. 하지만 그 후로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지 묻고 싶다.



이종전 목사

상대적 약자들을 위한 무상급식을 반대 할 사람도 없다. 다만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적으로 그만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서와 의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와 시스템으로도 공적인 책임을 함께 할 수 있고, 사후관리까지 완전하게 마련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정치권은 자신들에게 위탁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굳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야만 국민들도 보람과 소망을 함께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 또한 이에 대해서 모른다 할 수 없는 일이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한다. 후진국에서 활동하는 많은 한국인 선교사, 자원봉사자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기쁠 때가 많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교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다. 비록 먼데 있는 사람들이 아닌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고아를 수출하는 나라로서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가뜰이나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터인데 정작 나쁜 아이들마저 다른 나라에 보내는 현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는지....

제공뉴스미션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선교비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광고 및 문서선교비로 유지되는 본보와 기독교인터넷방송(WWW.JTNTV.KT)

「지저스타임즈(신문) 독자 제위께」

본보를 아껴주시고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위에 성심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본보는 구독료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며, 독자 여러분의 기도와 선교비 후원으로 문서선교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지사를 운영하고 지사장들과 기자들, 직원들은 독자 여러분을 존경하며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발행하는 본지를 위하여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본보는 독자님들의 문서선교비 후원과 광고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전국으로 확대해 가는 본보는 농어촌에도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건강한 한국교회를 만드는 언론으로 우뚝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후 2011년 2월 23일
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정기남 목사 배상

지저스타임즈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40-31
TEL(02)741-0031(팩스컴통) 070-8230-0032

■ 독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성장하는
교계언론 지저스타임즈입니다.



전국 16개 지사와 해외 12나라 지사가 매일 매일 기도하며 만드는 신문과 기독교인터넷 방송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선교를 부탁드립니다.

광고로 후원을, 문서선교지로 후원을....

· 은행 계좌번호

하 나 은 행 670-110405-00108
농 협 455030-56-005509
정기남

열두광주리기도원

김평호 목사 부흥회 일정

2010년 12월	6일~9일 13일~16일 23일 26일 27일~30일	열두광주리기도원 정기성회 여호와삼마수양관 행복한교회 보아스 사랑의집 열린문교회(상계동)
2011년 1월	3일~6일 10일~13일 20일 24일~27일	열두광주리기도원 정기성회 순천이레수양관 한국천양산학원 치유센타기도원
2011년 2월	7일~10일 14일~17일 21일~24일 28일~3월3일	열두광주리기도원 정기성회 여수삼마기도원 전주은일교회 인천임마누엘기도원
2011년 3월	7일~10일 14일~17일 21일~24일 27일 31일	열두광주리기도원 정기성회 사랑의교회(의정부) 금촌벚꽃기도원 보아스사랑의집 리더스기도원
2011년 4월	4일~7일 10일~13일 25일~30일	열두광주리기도원 정기성회 윤하기도원 필리핀체육관집회



열두광주리기도원
원장 김평호 목사

- 선한목자부흥사회 회장
- 열두광주리기도원 원장

주소: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350
H.P:010-8411-0191, TEL:031-535-6975

■ 인물탐방

세계원주민선교회 지오(지구촌오지) 교회건축행전 회장 정기환 목사

해외 오지에 교회 건축, 헌당예배 드리고 있는 정기환 목사

“병든 몸으로 해외 오지 선교를 하던 중 몸이 회복되어 세계선교에 비전을 갖게 되었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정기환 목사



세계원주민 선교회(회장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는 전 세계를 향하여 교회건축행전을 진행하고 있는 선교회이다. 정 회장의 주된 사역은 세계 오지를 중심으로 대지를 확보하고,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5월에는 인도 첸나이에 가든 교회를 건축하여 헌당예배를 드렸으며, 이어 8월에는 C국에 신학교를 건축하였고, 12월에는 스리랑카에 고치가테교회를 건축하여 헌당예배를 드리는 성과를 가져왔다.

2011년 1월엔 우간다에 리오교회와

탄자니아에 부헤마교회를 헌당하는 등 세계원주민 선교에 열정이 넘치는 회장 정기환 목사, 그는 현재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매달 1개 교회를 헌당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이는 원주민들에게 성전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안정적 성장과 구원의 방주로서 지속적 사역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어 주는데 있다고 정 목사는 말하고 있다. 게다가 아프리카에는 전기 시설이 없는 곳이 너무도 많아 <빛 보내기 운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원주민 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회장 정기환 목사는 세계선교회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한다. “20여 년 전 서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으로 선교 나갔을 때 충격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다. 보통 한 가정 12명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한 달 생활비가 미화 108정도였는데, 그 정도라면 한국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사실 해외선교하면 큰 교회나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을 때였는데 실재는 어려운 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새로운 발견이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됐

고, 병든 몸으로 선교를 나갔다가 치료받고 오는 기적의 선물까지 받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정 회장은 세계원주민 선교를 위해 진행과정은 “현재 2만 명이 넘는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에 파송되어 있다. 하지만 구원사역을 위해선 교회사역이 필수이고 이를 위해서 성장해 가면 성전건축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원주민에게 위임을 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한다. 그럴 바에야 속히 원주민에게 직접 성전건축을 하게 해서 시간과 경제적 절약을 함으로 인해 효과적인 구원사역을 하게 하는데 있어 활력을 불어넣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교회 하나를 온전히 헌당하는 데에는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오지를 중심으로 할 경우 100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감사한 것은 이에 대한 지경이 넓어져서 우물 파는 팀과도 연계되어 함께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이 없는 지역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을 마시러 왔다가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진척하는데 힘쓰고 있다며 정 회장은 선교 사역에 대해 말한다.

또한 미래방향에 대해 정 목사는 “세계의 오지는 어느 곳이나 찾아가지만 현재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아울러 전기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태양광 솔라를 이용한 자그마한 LED등도 동시에 보급하고 있는데 이는 원주민 선교사의 손에 들어가기 까지 약 5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다. 이 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기에 잔잔하게 소문을 내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원주민 선교사역에 동참할 수



▲탄자니아에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예배를 마친 후 기념촬영.



▲인도첸나이에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예배에서 설교하는 세계원주민선교회 회장 정기환 목사.

방법은 “성전건축을 원하실 경우, 교회명을 현지와 함께 논의하여 헌신하는 분의 뜻을 따라 지어드리며, 머릿돌에 헌신자들을 기록하여 드린다고 말한다.

이 선교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은 이메일 keyone209@hotmail.net으로 문의하거나 010-2956-9191(회장 정기환 목사)으로 연락하면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

물질로 지원할 경우 다음 구좌를 이용하여 금액에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될 것이라며(▶우체국 104976-01-003328 세계원주민선교회)온라인 계좌를 소개하고 있다.

세계원주민 선교회 회장 정기환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천전원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웨스턴신학교 및 웨스턴신학교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우간다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세계원주민선교회 회장 정기환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빛과소금교회**

교회 표어 :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담임 이재갑 목사
본지 운영이사
웨스턴총회부총회장

21세기 비전
1.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은 교회
2.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
3.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4. 땅 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2010 목회 지침
아버지여!!! 감절로 부흥케 하옵소서
감절의 성도 - 감절의 영감 - 감절의 물질 - 감절의 총성 - 감절의 선교

담임목사 : 이재갑
장로 : 박광순 김혜자
전도사 : 임사랑, 오정순, 김성임, 박에스터

(우)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198 ☎ 02)938-3521, 010-3228-3521
(빛과소금교회 수양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6-5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 현병우 목사
(본지 부사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H.P 011.9710-9190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
금요철야 : 오후 9시
월·화 영성사역 :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선교교회

부천대학교 ← 상동초등학교
점용산 아파트
사랑마을 아파트
북사골사거리
북사골문화센터

임마누엘 영성원
☎. 011-9710-919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참 좋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오산반석교회는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살게하는 인생 디자인센터입니다.

1. **사랑**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3. **연성**을 클리닉하는 교회입니다.
4.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담임목사 : 김능주

예·배·시·간		찾아오시는 길	
주일새벽예배	오전 06:00	주중새벽예배	오전 05:30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저녁 8: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9:20
수요예배	오후 7:30	WIVA영재교육	오후 1:00(토)
말파과점	오후 6(주일)	중·고등부	오후 9:30(주일)
디사이플스	오후 7:30(화)	청년부	오후 7:30(토)

오산시 원동 866번지 양우프라자 8층 Tel : 031) 378-9349
산양상담 : 010-2378-9349 http://www.반석교회.kr

엄동설한에도 멈추지 않는 봉사의 손길...

영광교회 부설 믿음의 집(원장 조성구 목사)은 “독거노인, 무의탁자, 장애우, 노숙자들의 쉼터를 12년째 운영”



원장 조성구 목사

영광교회 부설 믿음의 집(원장 조성구 목사)은 “독거노인, 무의탁자, 장애우, 노숙자들의 쉼터를 12년째 운영”

전화가 왔다. 평소 절친하게 지내는 지인 김희정 집사로부터 그녀가 그토록 청찬의 소리를 아끼지 않던 세무사 채양석 집사(주사랑교회)와 김순녀 권사(주사랑교회) 두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내용이었다. 서둘러 만남의 장소로 향하였다. 이천 시내를 벗어나 들길을 지나고 신길을 조금 올라가 한적한 곳에 자리한 곳...독

거노인, 무의탁자, 장애우, 노숙자들의 쉼터 믿음의 집...

인으로 들어가 인사를 마치고 촬영을 하고자 하니 ‘별 하는 일도 없는데 그러느냐’며 드러내지 않으려는 모습 속에서 남다른 겸손과 헌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누구나 한두 번쯤 혹은 일정기간 동안 장애우를 돕거나 기관을 찾아 봉사를 하는 이들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추운 날씨가 되든, 장마가 지고 폭설이 내리든 거르는 일 없이 10여년이 넘도록 지속해 오고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곳 믿음의 집에서 주로 행하는 봉사는 목욕시키기, 빨래, 청소, 손발톱 깎아드리기, 대화 나누기 등이었는데 손톱을 깎는 일은 유난히도 김순녀 권사를 찾는다고 한다. 세심하고 사

랑어린 손길이 남다르기 때문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았다. 진심어린 사랑의 마음이 이 분들에게도 전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세무사 채양석 집사는 봉사하는 이들을 꼼꼼히 챙기며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봉사가 끝나고 꼭 식사를 대접해 보낸다고 한다.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고맙고 예뻐서라고 한다. 수십년 만에 찾아온, 강물마저도 바닷물조차도 짝 짝 얼어붙는 엄동설한에도 멈추지 않는 봉사의 손길은 이 곳 믿음의 집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 그 자체였다.

김희정 집사(주사랑교회)는 봉사의 날에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여 봉사의 현장을 보게 하고 참여하게 함으로 산 교육

을 위한 시설을 보완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영훈구원이 제일 목적임을 강조하는 믿음의 집 조성구 목사는 은혜가운데 주위 교회와 선한 봉사자들의 많은 도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종파를 초월하여 어려운 이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고 영훈을 하내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집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한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경제위기와 구제역,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이변 등 민심이 흉흉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들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보며 이들이 있어 아직한 세상에 소망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별한 때에 한시적으로 거창하게 잘하는 것보다 꾸준히 찾아와 외로운 이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 하나가 더 큰 봉사라며 작은 것 하나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



▲독거노인을 지극히 간호하는 집사님들

조하는 채양석 집사, 김순녀 권사는 더 나이 들어 힘을 못쓸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 이 두 분은 기둥이 불편한 고령의 노모를 모시고 있다. 가정에서 늘 같은 수고 가운데 살면서 이와 같은 봉사를 꾸준히 해 나간

다는 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채양석 집사, 김순녀 권사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한다.

이천에서 CPU방송 이연희 기자

노숙자 2000여명 ‘설날 삶의 큰 희망 안겨’

“설날 희망큰잔치”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노숙자 2000명에게 4일간 따뜻한 밥과 세족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

2011년 설날 희망큰잔치가 지난 2일(수)부터 5일(토)까지 설 연휴기간을 맞아 4일 동안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연인원 2000명의 노숙자에게 한국 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외교통상부 법인 NGO단체인 (사)해피나우(이사장 길자연)가 주최하고 “밥사랑열린공동체”(대표 박희돈)와 (사)한민족사랑네트워크(이사장 김성호)가 함께 주관한 가운데 “설날 희망큰잔치”행사를 가졌다. 나흘간의 행사기간 동안 한기총 대표회장과 문화관광부장관, 통일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장관과 서울시장, 텔런트 이광기, 김민정 등이 식사 배식봉사에 동참했으며, 30여개 봉사교회의 담임목사와 성도들이 자원봉사에 나서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떡국과 만두국 등을 대접했다. 이번 2011년 설날행사를 시작으로 해피나우와 밥사랑열린공동체는 노숙자들의 경쟁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후원할 계획

이며, 올 여름 한강교수부지에서 ‘해피그린데이(HAPPY GREEN DAY)’를 진행해 일반인과 노숙인이 한강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박희돈 대표(밥사랑열린공동체)는 “사회인과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노숙인들의 재활과 노숙인 이미지 쇄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해피나우 사무총장 박원영 목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봉사단체 및 기업체와 개인후원자의 참여가 높아져 국가와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이 제고돼 사회봉사활동이 더욱 가치 있게 전개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2011 설 연휴 4일 동안 노숙자들에게 제공된 음식은 떡국과 만두국, 떡과 과일, 과자와 음료 등이며, 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인 가방, 신발, 양말, 속옷 등이 선물로 전달되었다. 현재 노숙자들 중에는 여성노숙자들이 약 17% (200여명) 영유아 50여명이 있다. 이들에게 방한용 선물과 유아용품 등을 각각 나눠 줬다. 또한 이날 노숙자를 위한 복지시설(세탁실과 샤워실)을 후원했다. 이외에도 박희돈 목사는 “밥사



▲노숙자들의 세족식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랑열린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노숙자 수련회 개최와 올해 새로이 기획하는 노숙자 등반대회, 노래자랑, 글짓기대회, 노숙자 어린이 집 운영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노숙자 재활프로그램도 강화하여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도록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노숙자 대안학교 프로그램에 노숙자들의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해피나우는 금번행사를 통해 사회봉사단체 및 기업체와 개인후원자의 참여가 높아져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웃

에게 지속적인 관심이 제고되어 사회봉사활동이 더욱 가치 있게 전개되었음을 평가하고,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연휴의 즐거움도 크지만 이를 포기하고 추운 일기에도 힘든 봉사에 참여하며 돕는 가운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들이 대거 참석해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섬김을 배웠으며, 또 가족단위의 봉사자들이 함께 배식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2월 말까지 영등포 노숙자를 위한 사랑의 선물과 헌옷 등을 후원으로 받는다.

설날 맞아 ‘사랑의 전령사’

사랑과행복나눔재단, 전국 1740가정에

직접 방문해 생활지원금 전달

사랑과행복나눔재단(이사장 조윤희 목사)은 설명절을 맞아 ‘사랑의 전령사’행사를 가졌다.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리민족 고유의 설명절을 누리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1470가정에 자원봉사자와 임직원 등 총 100여명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위로와 격려하며 사랑과 행복을 전했다.

또한 독거노인들에게는 세배를 드렸다. 2011년 설을 맞아 생활지원금 대상자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1315가정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 대구, 부산, 경남 등 지방에 소재한 155가정에 전달됐다. 사랑과행복나눔재단 조희준 대표는 “지금까지 긴급생활지원금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일정기간 온라인 입금으로 지급해 왔으나 이번 설에는 재단의 자원봉사자와 임직원들이 총출동해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했



▲사랑나눔봉사단의 기도

다”며 “각 가정을 방문해 어려움을 듣고 향후 재단의 사업정책에도 반영해 나갈”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대규모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소외계층 후원 행사를 갖게 된 것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설맞이 행사에는 총 6억 8천만

원이 지원되었다. 사랑과행복나눔재단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윤희 원로목사에 의해 2008년 설립한 이후 매년 평균 60여억 원의 예산을 책정, 사회적 소외계층에 생계비 및 주택개보수, 긴급의료비지원, 심장병 시술 등을 통해 소외계층을 돕고 있다.

< 성명서 >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를 앞두고 아름다운 섬 <제주도>를 ‘도박의 섬’으로 만드려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경범죄법 위반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김재윤 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여야 의원 19명(강창원, 권선택, 김상희, 김세연, 김우남, 김충환, 김태원, 나성민, 박은수, 변용진, 안민석, 이낙연, 이사철, 이인기, 장윤석, 조진형, 진성호, 추미애, 홍영표)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26일 ‘제주특별자치도 경범죄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나 정부가 출자한 기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출자금의 51% 이상을 출자에 설립한 법인으로 하여금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경범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자치재정권 확충을 위해 관광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빙상경주를 사업화해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빙상 스포츠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등 여가 선용과 국민체육의 진흥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우리는 김 의원의 무책임한 법안 발의에 대해 분노한다. 지금도 마사회와 강원랜드 등 각종 사행산업(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스포츠토토, 복권)으로 인해 약 30만 명의 도박중독자들이 발생되어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또 다른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하는 지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거기다가 도민 여론 수렴 절차인 공청회도 생략한 채 법안을 발의한 것은 도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며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지금도 우리사회에는 전 재산을 탕진하고 도박장 노숙자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허다하고 그 가운데는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한 도박중독자들의 가족들은 전 재산 탕진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빈민으로 전락하고 주부들은 일일노동자로 그 자녀들은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도박과 관련된 각종 강력범죄(절도, 강도, 살인, 횡령 등)는 계속 증가하여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박유병률(6.5%)을 선진국 수준(2~3%)으로 낮추기 위해 정부(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시민사회가 하나가 되어 총량제, 전자카드 도입 등을 통해 총력을 다하고 있고 더 이상 무분별한 도박장 증설은 안된다는 것을 정론이며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적 정책의 큰 틀을 외면한 채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 ‘자치재정확대’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제주도를 망치려하는 김 의원의 시도는 도민과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지금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를 앞두고 아름다운 섬 제주도를 알리기 위해 온 국민이 분투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를 ‘도박의 섬’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도록 확실한 김의원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김

의원은 즉각 경범죄법 위반을 철회하고 제주도민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또한 김의원 대표 발의에 서명동참한 의원들도 이를 철회하고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이를 무시할 경우 해당의원들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로부터 ‘도박을 조장하고 이를 방조하는 무책임한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다.

2011년 2월 10일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 권병휘 교수(전 홍익대), 범삼 스님(부산경실련),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이충재 목사(대전YMCA), 참여단체 : 경실련지역협의회(50단체), 경매피해자모임, 기독교사회책임, 나주시생사민사회단체협의회(10단체), 대전경륜장건립저지를위한충청지역공동대책위원회(83단체), 도박을격정하는성직자모임, 도박지킴이, 성남시민의모임, 순천화성경마도박장설치반대법사민대책위원회(112단체),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제주도범도민회, 중독예방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17단체), 천안화성경마장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20단체), 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주화성경마장반대시민대책위원회(39단체),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흥사단, 희망연대 등 총 300여개
문의 02-2261-1369 도박규제네트워크 사무총장 김규호 목사 (010-9618-0722)

2011 한기여총, 세난선협 신년하례회 가져

세계기독교여성총연합회(이하-한기여총)제5주년 및 세계난민선교협의회(이하-세난선협)제16주년을 기념하는 2011년 신년하례감사예배를 지난 31일(월)오후1시 ~ 5시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서관 대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찬양교육자협의회 대표 김경팔 외 찬양단의 준비 찬양이 있는 다음 오후 2시 권영자 목사(한기여총 대표회장, 세난선협 대표)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어 김소자 목사, 박인순 목사(한기여총실무회장)가 개회예배를 선언하고 인사 말씀을 전하고 정현숙 목사(제주지부회장)가 기도문, 한국성경중찬단의 특별찬양, 김명희 목사 외 4명이 섹스폰 연주를, 권태수 집사(복음가수)가 특송을 했다. 이어 창 13:14~18절을 주제로 피종진 목사(한기여총, 세난선협 고문)는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말씀을 통해 피목사는 한기여총과 세난선협 이 단체가 오랜 세월동안 처음에는 세계난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왔고, 또한 노숙자들을 위해 힘쓰며 밥도 지어 먹였고, 또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도왔으며, 특별히 난민들을 돕고 우리민족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민족이 되길 위해서 기도해 왔다고, 그 외 많은 일을 해온 대표회장 권영자 목사라며 격려했다.

첫째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다른 일이 있다. 본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조카 롯의 목동들이 서로 다른 것이다. 아브라함은 평화를 선택한 사람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최악의 평화가 최선의 전쟁보다 낫다.”는 것, 즉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은 언제나 평화를 선택하는 길이다. 그는 외로운 가운데 최고로 고통을 당하고, 최고로 아픈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다. 아브라



▲ 한기여총 대표회장 권영자 목사



▲ 한기여총 선서문 낭독하고 있다.

함아 네가 선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게 보이는 땅은 다 네게 주리라, 하나님의 복은 최고의 절망, 최고로 낮아졌을 그때가 역사하는 순간임을 볼 수 있다.

가장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을 때 가장 큰 위로와 축복이 그에게 왔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한기여총 위와 권영자 대표회장과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기원했다.

이어 고문 피종진 목사는 박인순 목사(회계실무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김영화, 원인환, 황은혜, 최영란, 백정희, 위원남, 김원식 목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총재 이종순 목사는 자랑스러운 한기여총 패를 정현숙, 이정희, 최미희, 박은혜, 김소자, 박흥례, 박인순, 박숙희 목사

들에게 전달했다. 연이어 후원회장 패는 한기여총 고문 피종진 목사가 인천지역후원회장 장인기 사장, 화성지역후원회장 홍경미 이사, 의정부지역후원회장 박종숙 집사 등에게 전달했다. 또한 이날 이무웅 교수(관동대학교 명예교수)의 축가가 있었으며, 염신형 목사, 지덕 목사, 정도출 목사 등(한기여총, 세난선협 고문)이 축사와 권면에 나섰다.

아울러 박주향 목사(주향기독교선교단)의 위심찬양을, 또한 이정희 목사, 김원식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박은혜 목사, 백승길 목사가 한국경제와 세계경제발전을 위해, 이나단 목사, 원인환 목사가 세계나눔복지재단을 위하여, 이상욱 목사, 이군자 목사가 세계난민선교와 2관 여명선교를 위하여, 위원남 목사, 이항호 목사가 북한복음통일



▲ 특송을 하고 있는 임원들



▲ 행사를 마치고 단체사진 촬영

오세훈 “민주당식 전면무상급식은 망국행의 지름길”

“민주당의 공짜복지는 역사에 죄짓는 일”

오세훈 서울시장장은 지난 12일 무상급식을 앞세운 민주당식 복지정책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 시장은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ohseehoon4u)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공짜 복지처럼 국민이 가진 불안 심리를 교묘히 파고드는 ‘표’ 매수 행위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누가 먹을 것으로 장난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시민의 힘으로 깨우쳐 달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나라돈으로 살포하는 현금을 손에 쥐고 기뻐하기 보다는 다음 세대의 이익을 위한 생산적 투자를 눈을 돌려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선배 세대들이 결행했던) 생산적 투자의 힘을 누리고 있는 30~40대들의 해인이 절실하다”며 “이제 함께 막아내고 10년 후를 대비하는 국가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바로 물가 얘기를 꺼냈다. 그는 “요즘 물가가 정말 심상치 않다”며 “설 명절도 지났건만 여전히 물가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고삐 풀린 듯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다 이런 이상 현상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더 걱정스럽다”며 운을 뗐다.

이어 “지나해 가락동 시장에 반입된 국내산 보통 3등급 배추 10kg 그물망의 월 평균 가격 추이를 살펴보니 12개월 연속으로 평년 가격을 크게 초과했다”며 “이는 가격 급등의 고착화를 의미하며, 기상 이변 외엔 달리 설명할 방도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농산물은 물론 수입 농산물 가격 추이도 마찬가지로 그 설명이다. 오 시장은 또 한 “기상이변과 인구대국의 식량수요 폭증,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국제 무기 세력의 농간을 감안하면 농산물 가격 급등은 장기적 추세로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거의 확실하다.”



▲ 오세훈 서울시장

다”며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같은 식량수급 불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또 “최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있는 현상도 이렇게 지극적 차원에서 가능해야 한다”며 “뛰는 물가 따라잡기에 급급한 것은 오히려 큰 맥락을 놓치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웃나라 일본의 상황은 다르다고 단언했다. 오 시장은 “(일본은) 우리처럼 곡물 자급률은 바닥 수준이지만 물가 상승률은 1%에 불과하다”며 “오래 전부터 정치 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국가전략의 수립’과 (해의) 농산물 조달을 담당하는 종합상사에 대한 ‘생산적 투자’를 통해 (체계적인) 농산물 조달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적정량을 비축해 가격조절에 대비하면서 각종 행정지원을 책임지고, 종합상사는 농산물 공급지를 여러 국가로 분산시켜 안정적인 수급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장은 “정치권의 농간과 정권의 교체에도 끄떡없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통찰력과 사회 시스템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민주당식의 부차집 아이들 공짜점심에 민족할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 우리 민족 전체의 먹거리리를 함께 고민해보자”고 거듭 당부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학생 모집

지망생에게 드리는 글



학장 정 기 환 목사
(D.Ed., Th.D.)

학장 경력

-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 ◆사단법인 기독교학원 이사장
- ◆세계주인교회 회장
- ◆글로벌 평생 교육원 원장
- ◆신앙인교회 담임목사
- ◆저서 성경개론 외 다수

현대는 새로운 세기와 급격한 변화의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굳게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들이 헛없이 무너져 내리는 대변혁의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서 ▲ 개혁신앙에 입각한 학문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 영적 혼란의 시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성경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소유하게 하며 ▲ 세상의 참된 자유와 소망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6대주에 활용할 수 있는 선교사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심도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각종 장학제도는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를 향한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사명감이 충만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설립 목적

본교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성에 입각한 초교파 신학교로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계선교와 목회사역 및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참신한 일꾼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①입학원서(본교양식)1통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③주민등록본 1통 ④여권사진 3매 ⑤편입생은 성적증명서 1통 추가

특 전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남, 여 목사인수를 받습니다.
- 성적 우수자 및 신앙심이 투철한 자에게 각종 장학금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본교의 장점

- 1.제출시간을 통하여 철저한 경건훈련을 합니다.
- 2.현장사역을 위한 국내 사역 및 단기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 3.전월1호선 부개역에서 2번 출구로 나오면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함
- 4.각종 장학제도로 현장 사역자에게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 5.부족한 영역을 계절학기 및 통신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도우며, 년 3학기까지 가능합니다.
- 6.학술원의 경우 캐나다 및 미국에서 역사와 권위 및 전통이 있는 신학교와 연계하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7.각 학과의 졸업 후 좀더 확실 있는 활동을 위하여 사단법인을 통한 자격증이 수여될 수 있습니다.
- 8.해외선교사들을 위한 배려와 인터넷에 의한 확장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교 교육의 특징

첫째, 철저한 학문교육
목회 및 신학 전문분야에 따른 학문 탐구 수 수업으로서, 해당분야 최고 교수진의 지도 아래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로 교육하며, 전문분야에 대한 개별 상담지도 및 각종 연구자료를 수집하여 현재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의 흐름을 정확히 읽기 위해 해외의 유명 교수진을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특별세미나를 갖습니다.
둘째, 강한 영혼 훈련
온전한 세대를 바로 잡아갈 영적 지도자로서 경건, 기도훈련 및 기타 수련회 등을 통하여 강한 영적 군사가 되도록 연마하여 능력 있는 지도자로 양성합니다.
셋째, 실직적 실천훈련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도록 성경 중언에 하며, 원하는 영역에서 힘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업을 마련해 주고, 해외 선교사역에서 다각도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현장감을 미리 경험하도록 합니다.
넷째, 올바른 인성교육
성경에 근거한 영적 도덕적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올바른 인격훈련,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위한 언어 훈련 생활을 통해 칭찬받는 일꾼이 되도록 합니다.
다섯째, 다양한 체험활동
미래에 가꾸어 갈 자신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국내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여러 곳을 탐방하여 많은 체험을 하고, 지식을 습득하며 폭 넓은 시야와 마음을 확보할 있도록 돕습니다.

전형 안내

- 전형기간 : 12월 ~ 2월(불학기), 6월~8월(가을학기)
- 전형방법: 서류전형 / 신앙면접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전도사, 선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우수한 학생은 해외 연계대학 및 신학원에 편입하여 해당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진로

우리나라는 100여 년의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기록적인 성장으로 약25%에 해당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약75%의 불신자들이 있음은 사명감에 불타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를 바라보면 아직도 영적 황무지가 너무나 많아서 복음의 여정은 무한히 넓고도 넓다고 하겠습니까. 이곳에서 올바르게 훈련된 사명자의 앞길에는

- ◆목양지에서의 목사, 부교역자 및 전도사
- ◆신학교에서의 교수 및 전문적인 교사
- ◆전국을 향한 발걸음 속에 부흥사 및 세미나 강사
- ◆기도원에서의 원장 및 상담사
- ◆병원, 교도소, 영로원 및 특수기관에서의 특수 사역자
- ◆해외에서의 선교사
- ◆기타무용 및 문서교과 사역 등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특별하여서 초효미 넘치는 순간까지도 매일을 받지 않고 어디서나 행하여질 수 있고, 이루어야만 하는 사역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넓고 다양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막1:17)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6:8)



정통신학의 요람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웨스트민스터신학교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 ※ 부개역 2번출구 200m지점 신천지불가람 옆 코너빌딩
- ※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오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32)323-5552, FAX : 032)322-0099
- H · P : 010-2956-9191 야간 : 032)321-9109
- E-mail : Keyone209@hanmail.net